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대면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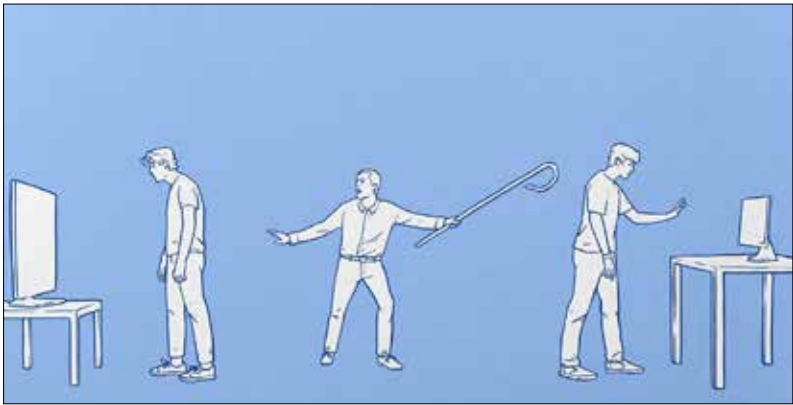
구글 검색이 못 주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다!

TGC, 코비드-19 인터넷전쟁 시대에 목회자가 교인에게 영향력 줄 수 있는 노하우 제시

2020년이 목회자들에게 가져다준 어려움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COVID-19가 전통적인 교회 생활과 신앙 습관 (formational practices)이 아닌 온라인과 당파적 이데올로기 생태계에 의해 악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가혹이나 부정적인 문제들을 훨씬 더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COVID 전에도 목회자들에게 세상과의 싸움은 승산이 없는 것이었다. 디지털 시대, 아니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해 세속적인 시대는 이제 그 영향력을 넓혀서 기독교인이 무엇인가라는 주제까지 다루고 있을 정도다. 이제 교회는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한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로 점점 더 전락하고 있다. 교회 예배가 차지하는 시간은 단지 일주일에 두 시간 남짓이지만 팟캐스트, 라디오 쇼, 케이블 뉴스,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각종 종류의 미디어가 기독교인의 삶

에서 차지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90시간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단지 몇 시간에 불과한 예배(COVID 시대 속에 아예 0시간이 되기도 한다)를 가지고 미디어 광풍에 휩싸인 세상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목양에 최고 권위를 가진 목회자라도 지금과 같이 수많은 목소리가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서는 제대로 양떼를 관리하기 힘들 것이다. 목회자라면 누구나 다 이런 도전이 주는 무게를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COVID 환경은 단지 그런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노출시켰을 뿐이다. 그 결과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 앞으로 몇 년 안에 탈 목회자를 선언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룰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게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다(Are Churches Losing the Battle to Form Christians?).



목회자들이 직면한 압박(pressures)을 경계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어서는 안 된다. 양떼의 마음과 정신을 똑바로 지켜주기 위해서 싸우는 일은 목회자에게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늑대가 양을 채가고 흡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요10:12).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에게 양떼를 아끼지 않는 '사나운 늑대들'을 '경계하라'고 경고했다(행20:29-31). 목회자에게 '늑대'가 주는 위협은 결코 새로운 게 아니다.

새로운 건 이것이다. 인터넷 시대에 한 마리 양은 말 그대로 수백만 마리 늑대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단지 클릭 몇 번에 양은 늑대들이 가져다주는 노골적이거나 은밀한 위협에 바로 노출될 수 있다. 목회자가 이 모든 늑대들을 상대로 양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목회자가 그렇다고 교인들의 인터넷 활동기록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

니라 수백 명의 교인인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 검색 창은 우리 시대가 만난 영적 전쟁터지만 일대일 전투에서 마음과 정신을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신앙생활에서는 숨겨진 전쟁터이기도 하다. 설혹 목회자가 이 싸움에 뛰어들어서 교인들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경우에도 100명의 교인이면 100개의 다른 전쟁터가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온라인 생활은 다 다르다. 그런 상황에서 오래지 않아 목회자가 지켜서 나가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색 창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특징인 '보이지 않음'을 훨씬 더 보이지 않도록 만드는 특징을 가진 '전염병 시대'에는 상황이 더 나빠진다. 격리된 상태에서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온라인 존재로 바뀌고 있다. 인터넷 정 보라는 독이 든 우물에서 자꾸 물을 퍼서 마시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독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의미 있는 전통적 기독교인의 신앙습관형성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인터넷 환경 속에서 이제 기독교인은 온라인을 집이라고 부르며, 아예 그 집이 원하는 형태의 기독교인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목회자들이 양떼의

마음과 정신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의 위험한 접근 방식은 또 다른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문제는 인터넷 시대에 양들이 사방팔방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누군지도 모르는 이를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간 다. 그 목자도 누가 따라오는지 모를 뿐 아니라 관심도 없다. 게다가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 목자라고 생각했던 이는 늑대로 밝혀지기 십상이다. 목회자들은 여러 가지 위험한 이데올로기적 방향으로 끌려가는 양들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양들의 일부는 극좌파로, 또 일부는 극우파로 향하고 있다. 조만간 빌 게이츠가 주도한 "코로나 사기(scamdemic)"의 일환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겠다는 협박이 담긴 이메일을 보수적인 교인으로부터 받는 목자들이 생길 지도 모르는 일이다. (3면으로 계속)



중공, 전국민 각종 생체데이터 수집

호주전략정책연구소, 중국 유전자감시체계 보고서 통해 인권유린, 소수민족 박해도구로 고발

중국 정부는 신장과 티베트에서 시작한 DNA를 비롯한 각종 생체 데이터 수집을 중국 전 지역, 모든 중국인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이것이 미결범죄의 해결에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반체제 인사며 소수민족들의 박해 그리고 크리스천 색출에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Genomic Surveillance: The Orwellian World of CCP's Total Control: Starting from Xinjiang and Tibet, the Chinese government wants to collect DNA and other biological data of all citizens. Yes, it may help solving unsolved crimes, but also persecuting dissidents and ethnic minorities more effectively).

중국 당국이 법의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범죄자들의 DNA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연례 무료 신체검사를 병자해 거의 모든 티베트 자치구 인구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DNA를 수집한 것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의해 보고된 것은 2013년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그때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상태다. 최근 새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소위 문제 지역의 주민들을 추적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중국 내 모든 남성인구의 생체 데

이터를 수집하려는 상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남성과 소년 수백만 명의 DNA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은 지금까지보다 더 광범위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뎁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심지어 중국 법에 비춰보아도 불법이다. 이 엄청난 계획을 폭로하는 '중국의 저인망식 DNA 유전자검사(Genomic surveillance, Inside China's DNA dragnet)'라는 제목의 새 보고서가 호주전략정책연구소(Australian Social Policy Institute, (6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푸른초장
장성철 목사



개혁의 명방울
조진모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암,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1919.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웨딩, 장례식 전문
사랑을 전합니다
Florist 나비꽃집 NAbi
대표: 장효종(뉴욕 크리스천 코럴)
718-286-9920
email: floristnabi@gmail.com
44-29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 발행인 칼럼 ●

가장 비열한 질문



김성국 목사
(켄츠장로교회 담임)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질문 중의 하나는 가인의 질문이었다. 형제 아벨을 시기하여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때 역사상 가장 비열한 가인의 질문이 나왔다. “내가 알지 못하나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죄 없는 형제를 죽여 놓고 오히려 따지듯 묻는 가인의 행태는 비열하고도 간악하다. 죄를 지은 가인에게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그 기회를 외면했다. 가인은 그 때라도 그런 비열한 질문 대신 통회, 자복, 회개했어야 했다. 그는

자기의 죄를 덮기에 급급했고 형제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았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임하였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비열한 질문의 주인공 가인은 방랑자가 되었다.

지난 9월 22일 오후 9시 40분, 북한군에 의해 어떤 이유이든지 바다에 표류하던 대한민국 공무원이 사살 당했다. 며칠 뒤 북한의 통지문이 발표되었다. 그 안에 담긴 대단히 미안하다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유감이란 표현이다. 그들이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귀족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력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다 위의 기진맥진한 민간인을 사살하고도 따지듯이 커다랗게 유감 표현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유감 표현 중의 하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상황을 지켜본 우리 군 당국의 보고는 역사상 가장 비열한 핑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군은 이렇게 말한다. 북한군이 민간인을 그렇게 죽일 줄 몰랐다고도 하다가 감정을 통해 살해할 것을 미리 알았다고도 하는 등 좌충우돌의 보고를 내놓았다. 그런 핑계를 듣자니 어이없다.

지난주일 목양칼럼에 필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얼마나 추웠을까요? 찬 바다에서/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자기를 건져줄 사람들/ 그는 끝내 그는 그 찬 바다에서 숨졌습니다./ 북쪽에서는 총을 쏘고, 남쪽에서 바라만 보고/ 아무도 그를 구하려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 주 한반도 저 북녘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날 그 시간, 그 바다를 지켜본 미상의 비행물체가 하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그 사람/ 누가 무엇으로 설명하고/ 누가 무엇으로 변명해도/ 우리 모두의 애통과 분노를 가눌 길 없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어 가는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많고, 그들을 구경하는 자들도 적지 않은데/ 그들을 구하려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하늘 하나님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실 것입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남만 지적하여 가장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일이 아니다. 우리도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침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즈버그 대법관 사망, 미국사회 보수화 전환 분수령

로이터, 낙태, 건강보험, 환경규제 등 보수화 미칠 영향 보도

미 연방대법원의 진보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사망은 미국 사회와 법 집행에 있어서 중대한 함의를 갖는 사건이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6 대 진보 3이라는 보수 절대 우위의 구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트럼프는 지난 26일 긴즈버그의 후임 대법관으로 강력한 보수

성향의 코니 배럿을 지명했으며 배럿이 상원 인준 표결을 통과하면 미국 사회는 여러 면에서 보수화를 체감하게 될 전망이다.(U.S. Supreme Court faces major challenges when it returns without Ginsburg).

임신중단(낙태)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들

연방대법원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통해 임신 중단을 합법화한 이래로, 보수진영은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해왔으나 늘 역부족이었다. 트럼프가 긴즈버그의 자리에 확고한 보수적 인물로 앉힌다면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단 권리를 뒤집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보수 연방대법관들은 총기 보유 권리 확대, 개인의 종교적 권리 강화, 투표권 제한 같은 다른 사회적 이슈들에서 훨씬 더 과감한 입장을 취하게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해서 기후변화 같은 이슈에 대해 중대한 법안

케어 법안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구두변론이 진행되는 날이다. 오바마케어 법안은 2010년 시행됐으며, 2012년에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법안 유지 결정이 나온 바 있다. 긴즈버그는 다수의견(5명) 쪽에 섰다. 그의 후임자가 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때까지 트럼프가 지명한

에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도 있다. 연방대법원은 12월 2일에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이 제기한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개입을 수사한 로버트 무러 특검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로 알려진 로버츠는 주요 판결에서 세 차례 긴즈버그와 함께 진보 편에 섰다.

지난 6월 그는 루이지애나 주의 엄격한 임신중단 규제법을 폐지하는 데 힘을 보탤 수 많은 ‘드리머(부모와 함께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폐지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데도 기여했다.

로버츠는 큰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면 중재에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더 보수적인 동료 연방대법관들을 놀라게 할 때도 있었다.

일례로 지난 7월, 그는 뉴욕 검찰이 트럼프의 금융기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민주당 주도의 하원위원



총기보유권리 확대, 개인 종교적 권리강화, 투표권 제한 연방대법원장 중심적 역할 약화, 연방기관 권한 약화

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이 같은 진보적 법안들을 폐기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사형제 폐지 같은 진보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연방대법원이 6대 3으로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서 보듯,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불투명한 오바마케어의 미래

단기적으로는 긴즈버그의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질 재판은 11월 10일에 열린다. 보수 진영에서 오바마

후임이 인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방대법원은 보수 5 대 진보 3의 현재 구도 그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으로 올라와서 10월 5일부터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또 다른 사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1월 4일, 연방대법관들은 특정 연방 법률에 대해 종교적 권리에 따른 예외가 어디까지 적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심리를 벌이게 된다. 필라델피아 시는 시 정부가 운영하는 위탁보육 프로그램에서 가톨릭 사회복지 기관의 참여 신청을 금지했다. 이 기관이 (법을 어겨) 동성커플의 신청을 거부한다는 이유

연방대법원장의 균형자 역할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의 은퇴 이후 지난 2년 동안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긴즈버그의 후임을 지명할 경우 그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9명의 연방대법관들 중 이념적으로 가운데 있는 로버츠는 그동안 (자신을 뺀) ‘진보 4 또는 보수 4’ 구도 속에서 어느 한 쪽의 편에 서는 데 따라 5대 4로 최종 판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다. 연방대법원이라는 기관과 사법기구의 독립성 수호를

회가 비슷한 문서를 확보하지는 못하게 한 두 건의 판결문을 모두 작성했다.

긴즈버그가 사리진 지금, 로버츠는 직접 균형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됐다.

정부가관들에 대한 전쟁

보수 진영과 기업들은 연방기관들의 권한을 약화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으며, 연방대법원은 이미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보수 성향 판사가 6명으로 늘어나면 소위 ‘행정국가(administrative state)’에 대한 전쟁은 확대될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일세탁/베스트셀러/성구/성화 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 (201)346-0030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718-886-4400
광고문의: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색도영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췌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 (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의사: 이규성 원장
진료: 안.내 - 저이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공고

대흥장로교회는 미국 Los Angeles 지역에 위치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1977년 창립한 이후 43년 동안 분열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꾸준히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담임목사님이 병환으로 은퇴하셨기에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 격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목회경력: 5년 이상 (부목사 포함)
2중언어(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는 분

제 출 서 류 이력서
최근 설교 동영상 2편
자기소개서 (목회소명/목회경험/신앙고백/성장배경/가족소개와 가족사진)
추천인 3인의 추천서
목사 안수증
출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제 출 마감일 2020년 12월 15일

제 출 처 application.dkpc@gmail.com
대흥 장로교회 (DaeHue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기 타 서류는 e-mail로만 접수합니다 (Word, PDF)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모든 문의는 e-mail로만 받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대흥장로교회
Dae Hueng Presbyterian Church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 어: _____ 평 신 도

배 달 주 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 달 주 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구글 검색이 못 주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다

(1면에서 계속)
그 메일을 받고 한 시간이 흐른 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간에 말한 내용에 대해 교회가 충분히 분노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교회를 떠날 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어느 진보적 교인을 같은 목사가 상담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패배감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피차 이질적으로 형성된 무리에게 일관된 기독교적 정체성(Christian formation)을 이끌어내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있기는 한 것일까?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아니, 아마도 21세기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메타 위협인 동시에 결코 글 하나로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그러나 구글 시대에 목회자들이 기독교 제자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전술적인 일들과 관련해 향후 관련한 더 많은 대화를 촉발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나누고자 한다.

1. 이제 미디어 습관이 제자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목회자들이여,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시간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변해가는 지를 성도 스스로가 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당파적 뉴스거리, 케이블

뉴스, 트위터 등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그게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미디어를 가려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media literacy) 인도하라. 디지털 금식을 제안하라.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을 향하도록 그들의 눈을 돌리라.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리소스로 안내하라. 뉴스피드 스타일의 리믹스된 영성의 공허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

미디어 분별력 인도, 디지털 금식 제안, 신뢰할 온라인 리소스 안내 교회 본질에 대한 숙고, 주중생활에서 기독교인 정체성 드러내도록

미디어 중독과 과도한 인터넷 사용 시간을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다루야 할 심각한 목양적 문제로 삼아야 한다. 바람직한 온라인 습관을 들이도록 교인을 인도하는 것은 이제 당신 교회의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됐다.

2. 주일이 지나서도 기독교인 정체성을 만드는 노력을 우선시하라

주일 예배모임은 필수적이며 결코 무시되거나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동시에 기독교인 양성을 위한 다른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미 차고 넘치는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기독교 버전의 Netflix 및 TikTok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속임수를 쓰거나 기술 유행을 쫓자는 말이 아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교육, 아름다움, 일 및 여가를 촉진하기 위해 주일 뿐 아니라 주중에도 내내 창의적인 리듬을 장려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목회자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21세기에 거룩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하는가, 거룩한 기독교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다.

3. 교회는 이제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머무르면 안 된다

단지 훌륭한 설교, 최고의 예배음악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 전달자로 스스로를 파악하고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오래지 않아 죽은 교회로 전락할 것이다. 구글 시대에는 클릭 한 번으로 언제나 더 나은 설교와 더 나은 예배음악을 만

날 수 있다. 그러나 그 온라인 "콘텐츠"도 결코 교회를 대체할 수 없다. 이제 목회자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

구글 검색이 주지 못하는, 과연 그 무엇을 지역교회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가? 현재 교회에게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설득력 있고 매력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다.

목회자와 교회지도자여, 용기를 잃지 말라. 물론 힘든 시간을 맞고 있지만 이 건 그리스도의 신부가 직면

한 가장 최근의 도전일 뿐이다.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다. 인터넷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그들을 격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주인 또는 창조자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청지기다.

우리 같은 연약한 목자들은 위대한 우리의 목자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않는 한 양떼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주님이시다. 전염병, 분열을 일으키는 정치적 문제, 심지어 지옥의 문(마 16:18)조차도 교회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TGC)



시론

서로를 채워가는 여유!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중에는 결혼을 앞둔 여성들에게 이색적인 행사를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먼저 참가 여성들이 각각 옥수수 밭에 한 고랑씩을 맡아 그 고랑에서 제일 크고 좋은 옥수수를 따는 여성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에는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밭을 돌다가 한 번 지나친 옥수수나무는 다시 돌아볼 수도 없고, 그 나무에 달린 옥수수를 딸 수도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옥수수 하나만을 따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뺏으면, 도중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고 해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여성들은 극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세 명의 여성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시작되자 신중히 옥수수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옥수수 밭에서 나온 여성들은 처음에 있던 자신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 상태로 풀이 잔뜩 죽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작고 형편없는 옥수수가 한 개씩 들려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골라도, 너무 골랐기 때문이었습니다(편).

한참을 웃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이 살아갈 인생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경험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딱이나 공감이 됩니다. 사랑도, 인생도, 직장도, 지도자도, 자동차도, 집도 등등 당시에는 가장 좋다 여겨져 선택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며 이리저리 비교하게 되고 다른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남의 손에 든 떡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의 보편적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후회로 스스로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반쪽도 완벽한 타인도 없고, 완벽한 직장도 완벽한 물건들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때그때의 최선들이 모인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뒤늦은 후회나 한탄이나 자조보다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을 갖고 채워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태적평리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낼 것이 남아 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낼 것이 없는 상태를 완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완벽이란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는 여유 안에서 상호 완성을 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상담이론 중에 '수용전념치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수용전념치료"는 말 그대로 수용(ACCEPTANCE)과 전념(COMMITMENT)을 강조합니다. 상담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Personal Therapy, Group Therapy 등등의 심리치료, 상담치료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전념치료에서는 나를 힘들게 한 그 문제를 그 자체로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수용"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에 내가 조금 더 가치 있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겁니다. "전념"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힘들게 했던 지난날의 인생의 문제들은, 현재의 내가 집중하는 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을 통하여 어느덧 대수롭지 않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용-전념 치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시간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시간들은 어떤 의미들인지 간에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시간들,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인생들의 안 좋은 일들과 단점들을 단죄하고 아쉬워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그건 그대로 내가 당시의 나로서 최선을 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신명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찾아서 그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때 지나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모진 시간들과 아픈 사건들에서 자유롭게 되고 그 자유함이 우리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수용과 전념의 신앙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 모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적응도 되어 각자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의 현장 속에서 새로운 삶의 패턴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적인 생업의 창고도, 사회적인 여타 활동들도 계속되는 많은 제한 속에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이때 현실이 우리 인생의 타깃이 되어 절망하고 한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의 현실과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될 줄로 믿고(수용)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들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나가야 합니다(전념), 이 가을에 서로가 서로를 채워가는 여유를 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맺습니다.

"형제들이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3:13-14).

pastor.eun@gmail.com

긴즈버그 대법관... (2면에서 계속)

가장 주목할 만 한건 1984년의 기념비적인 판결, 즉 연방법의 적용범위를 해석할 때 법원은 연방정부 관료들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 판결이 번복될 경우, 앞으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환경 규제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를 도입하려던 보수 대법관들로 채워진

연방대법원이 이 같은 시도를 제한함에 있어서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된다.

이미 임기 중에 두 명이나 대법관을 지명하는 '행운'을 누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긴즈버그의 후임자로 강력한 보수적 성향인 코니 배럿(48)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배럿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와 표결 및 공식 임명을 대선(11월 3일) 전에 마친다는 계획이다. 배럿이 최

종 임명될 경우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보수색이 한층 강해져, 앞으로 임신중지, 총기 소유, 의료보험, 성소수자 권리 등에서 보수적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배럿은 임신중지에 반대하고 총기소유 권리를 옹호하는 보수 성향이다. 모교인 노터데임대에서 법학을 가르쳤으며, 2017년 트럼프에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지명됐다. 트럼프는 오래 전부터 긴즈버그 후임으로 배럿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럿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미역 사상 5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1991년 43살에 대법관이 된 클라렌스 토머스 이후 두 번째로 젊은 나이에 대법관에 오르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남편 제시는 변호사이며, 7명의 자녀 가운데 두 명은 아이티에서 입양했다.

언론은 대법관 임명 문제는 남은 대선 기간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한다. 트럼프는 첫 임기 안에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에 이어 이날 배럿까지 무려 3명의 대법관을 지명하게 됐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긴즈버그가 숨진 직후부터 "그 자리를 채우라"며 신속한 후임 인선을 주장했다. 배럿이 상원 인준 표결을 통과할 경우, 트럼프로서는 미국의 보수층에게 상당한 레거시(유산)를 쌓게 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986-4400 (대표)
 · Fax (718) 986-0074 (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뉴 패러다임 목회와 선교를 위한

Dynamic pastoral leadership

목사, 선교사를 위한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Doctor of Leadership

48 학점과정
Pastoral Leadership, Mission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60 학점과정
Pastoral Leadership, Missio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www.midwest.edu
 (636) 327-4645 usa@midwest.edu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Our Faith, Our Vote, Our Voice! 2020년 대선 예비선거 크리스천 투표 가이드라인

투표는 "정치"가 아닙니다. 투표는 우리의 삶입니다. 투표는 내 자녀들이 살아갈 때 일 매일 삶의 방향과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흐름잡이입니다!



정을 시민들의 세 금으로 감당케 하는 AB2218 역시 지금 주지사 상위에 올라갔다는 소식입니다.

(모든 발의안/법안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tvnext.org에 가서 "발의안/법안" tab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악한 법안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통과시키는 그들을 중지시킬 수 있을까요?

먼저, 미국 안에 각 당(민주당, 공화당)들이 지키는 Platform(플랫폼) - 정당을 보면 그들의 지향하는 방향과 가치관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강이란 각 당들이 결사적으로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신앙고백문과 같은 것이기에 개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자신이 속한 당의 정강대로 법을 만들고 지지합니다. 한 예로, 이번 캘리포니아에서 SB145가 얼마나 어린이들에게 사악한 법인지 매우 격하여 말했

Registration Deadline 유권자 등록마감: October 19, 2020 Absentee Ballot Request Deadline 우편 투표 신청서 마감일: October 27, 2020 Absentee Ballot Return Deadline 우편 투표 마감일: November 3, 2020 Early voting(조기 투표): Varies by county 카운티에 따라 다름. General Election 투표일: November 3, 2020

매우 매우 중요!

이번 대선 투표는 절대로 우편으로 보내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투표가 끝난 후에도 우편으로 부친 표들은 조작이 될 우려가 이번엔 특히 매우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편으로 "투표 신청"은 하시되, 집에서 다 적은 것을 투표함에 가지고 가서 직접 넣어주세요.

투표는 우리의 삶입니다. 왜 성경적 가치관에 투표해야 하나?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매우 가슴 아픈 한 예만 듭니다. 저희 Tvnext에서 지난 몇 달간 언론, 미디어, SNS 등 총 동원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최악이 될 사악한 발의안들 반대 운동을 여러분과 함께 펼쳤습니다. 하지만 워낙이 이런 발의안을 만들어 제출한 캘리포니아의 의원들이 주정부 동성애 의회 출신인 사람들이 많고 반기독교 성향이 짙다보니 지금 다 하원, 상원에서 통과되어 그들과 같은 민주당 소속인 주지사 게빈 뉴섬 상위에 놓여 있습니다. 게빈 뉴섬이

이 발의안들을 법안으로 서명하여 통과시키는 것은 시간문제라 되었습니다.

특히 AB 624, AB175, SB 233, 그리고 SB145와 SB1145 등은 이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소아성애자"를 정상화시키는 것에 한 단계씩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발의안들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른과 성관계 할 수 있는 나이를 법안에 따라 14세(SB145)에서 16세(SB1145)로 낮추는 발의안들입니다. 이 법안들은 어른과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의 동성 성행위를 허락하여 항문섹스나 구강섹스까지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그들의 성범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내 옆집에 살고 있는 남자가 행여 성범죄자 또는 소아성애자여도 알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AB493은 선



소아성애자를 정상화 시키는 단계적 발의안 SB145:

생님들이 이미 문란한 성관계를 "젠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르치고 있는데, 이 법안은 그나마 양심을 가지고 피해 오던 선생님들에게까지 의무화 시켜서 학생들에 "젠더교육"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지난주 게빈 뉴섬 주지사가 이미 SB145(14세와 성인 동성 성관계)에 서명함으로 통과시켰다는, 예상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의 성전환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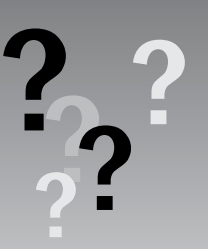
던 민주당 의원 Lorena Gonzalez는, 그녀의 말은 고마웠지만, 결국 투표자리에서는 SB145에 Yes 투표를 넣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매우 신속히 끼친 지난 10년간 통과된 법안들을 Tvnext.org에 가서 "법안"을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확연하게 차이 나는 두 당의 정강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으로 만약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나 타락하면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지요? 지금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사람이 미래 일을 모르기에 구원문제도 가끔 불안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요?

- 청년부 K. Chung

A: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두 부류이기에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의 신인협력(神人協力)이라하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 신학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오직 성경과 불가항력적 은혜를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한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거나 중간에 취소되는 법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로서 후자가 보다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성경을 예로 들어봅시다.

첫째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의 착한 일은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는데 영여성경은 처음에는 시작(began)을 썼다가 이룬다(to completion, 완성)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는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 교리라고 합니다. 여기의 견인은 오래참음인데 이것은 내 힘으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래 참아 구원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타락은 있어도 영구히 타락하여 망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믿는 자가 약하고 죄의 세력이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은 더 강하기에 결국은 구원을 이루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정-소명-칭의-영화 단계로,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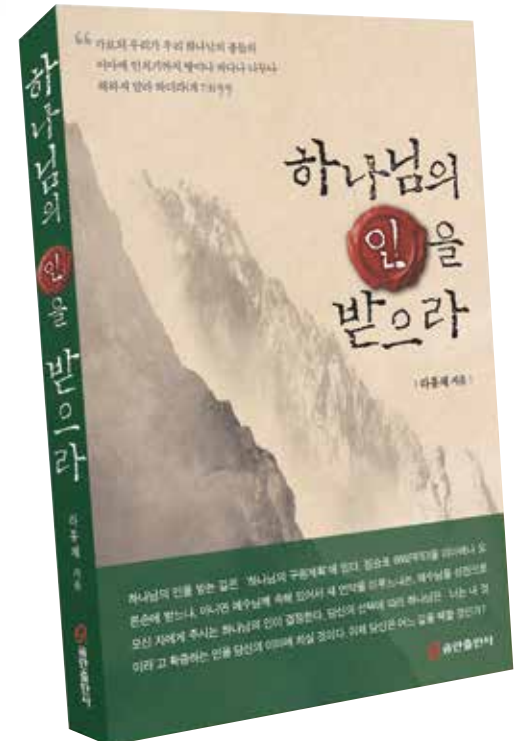
둘째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구절인데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구원의 황금 체인(Golden Chain)이라는 구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예정, predestination)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소명, calling)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칭의, Justification)하시니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영화, Glorification). 이 4가지가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도중에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불려서 예수 믿게 하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칭의의 은총을 주시고 칭의의 은총을 받은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결국 영화에 이룬다는 결론입니다. 이 영화는 천국에서의 구원의 성취인 영화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정과거형입니다. 헬라어의 부정과거형은 너무나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씁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제17조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타락하여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의의 길로 돌이키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다리를 절면 부축해주실 것이요 걸을 수 없다면 주께서는 업고라도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면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작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저지대 세망(Lowland Semang)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계속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적도를 따라 3000마일이 뻗어있는 13000의 작은 섬들과 다섯 개의 큰 섬을 가진 다도해다. 남동쪽 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이 섬들은 호주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섬들 사이에서 실제적인 해로를 지배하고 있다.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를 잇고 있다.

저지대 세망은 말레이시아



반도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고유의 종족들 중 하나의 후손들이 "세망(semang)"이라는 말은 아마도 "빛진 노예"라는 의미인 크메르 말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1800년대에 증가한 말레이시아 인구에 따라 말레이는 세망을 포함해 모든 원주민을 노예로 만들었다. 말레이와 세망 사이에 관계는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다. 저지대 세망은 사실 싱가포르의 남동쪽인 빈탄(Bintan)섬에 이주했다. 오늘날 그들은 저지대와 숲이 있는 작은 언덕에 살고 있다. 그들은 크메르어 계통인 세망어를 사용하고 있다.

삶의 모습

최근까지 저지대 세망족은 유목민처럼 숲에 살았다. 그들은 촌락은 없지만 20여개로 구성된 임시 캠프에서 살고 있다. 세망이 여전히 유목민적인 삶을 살지만 좀더 영구적인 거주지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작은 말레이 스타일의 대나무와 짚으로 이은 집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다.

경제적인 기회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저지대 세망은 다양한 기회를 갖고 어떤 이들은 무역을 통해 숲의 생산물을 모으고, 반면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농부들이며 경작을 위해 화전법을 사용한다. 쌀, 카사바, 옥수수, 고구마가 그들의 주된 농작물이다. 그들은 또한 야생고구마, 죽순, 팥콩, 꿀과 같은 숲의 생산물을 소비한다.

그들은 원숭이와 새를 입으로 부는 대용으로 사냥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숲에서 얻어진 모든 음식은 대가족에서 자유롭게 사용된다. 많은 숲의 생산물들은 무역으로 혹은 시장에서 팔 수 있다. 송진, 밀랍, 꿀, 식물약재료, 그리고 등나무 줄기는 종종 다른 필요한 물품과 철제 도구를 위해 교환되기도 한다. 살아가기 위해서 무역에 의존하지 않지만 이러한 도구와 사치스러운 제품들은 그들의 삶을 더 편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핵가족은 저지대 세망에서 가장 큰 결속된 그룹이다. 한 명 혹은 둘의 확장된 가족은 잠시 동안 함께 살지라도 가족은 쉽게 그들의 길을 따로 정해 나간다. 젊은 사람들은 일 반적으로 그들 자신의 배우자를 부모와 상관없이 고른다.

결혼식은 함께 가족을 구성하며 단순하게 이루어진다. 이혼이 허용되지만 둘 사이에 아이가 없을 때 종종 이뤄진다.

세망족 사회에서는 성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권위가 없으며 사회를 다스리는 외부적인 형태가 없다. 그들이 싸움을 싫어하기에 그들 사이에 다툼이 드물다.

신앙

대부분의 세망족이 정령숭배주의적이지만 저지대 세망은 주로 수니파 무슬림이다. 그룹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은 앞선 정령숭배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 농업의 의식을 뿐만 아니라 출생, 질병, 그리고 죽음과 같은 많은 일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에서 특별히 정령숭배적인 요소가 풍부하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역사는 분

명치는 않으나 그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슬람 말레이와 인도네시아의 문화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대부분의 저지대 세망족은 복음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성경은 세망어로 번역돼있지 않으며 현재 그들을 위해 일하는 어떠한 선교단체도 없다. 오직 소수의 저지대 세망 기독교인이 존재할 뿐이다. 이들 기독교인을 위해 그들 언어로 된 기독교적 자료들 특별히 성경이 필요하다. 이들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된 일꾼들과 종보기도 또한 간절히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교회 10곳 중 9곳 현장예배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교회가 예배당을 폐쇄하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급격히 줄었던 성도들의 헌금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스테이트오브더플레이트는 지난 8월 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교회 목회자 10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4%가 '코로나 이전보다 헌금이 늘었다'(22%) 또는 '이전과 비슷하다'(42%)고 밝혔다. 지난 4월 조사에서 같은 질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헌금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65%였던 것에 비하면 성도들의 헌금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보다 헌금이 늘었다는 응답(22%)도 4월(8%)에 비해 14% 포인트 증가했다.



대면예배를 재개하는 교회도 늘고 있다. 응답자의 87%는 예배당에서 현장예배를 재개했고 교회 내 성도 간 모임도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또 다른 조사기관인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지난 7월 '미국 교회의 71%가 대면예배를 재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더 많은 교회가 대면예배 재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8%가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참석률이 절반 이하'라고 답해 온전한 예배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브라이언 클루스 미국 복음주의연합회 대변인은 "코로나19가 가져온 큰 위기 속에서 대부분 교회와 그 가족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할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성도들의 헌금액이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목회자 대다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며 "목회자의 목양이 회복되려면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의 회복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의 신뢰도는 94%, 오차범위는 ±5% 포인트였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김정은 사과...

한국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시신 훼손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했다는 소식을 전 세계 언론이 긴급하고 상세하게 보도했

다. 외신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21일 발생한 연평도 공무원 이모(47)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동포들을 크게 실망시켜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에 대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 독재자의 사과는 이례적"이라며 "북한이 남한 민간인을 살해했을 때 연민이나 유감을 표현한 적은 있지만 지도자의 말을 인용해 직접 문서로 낸 적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WSJ는 "김 위원장의 진서는 여름 내내 북한 관영매체들이 비난했던 문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한반도 긴장고조를 낮추고 싶은 의도를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도 "북한이 엄밀히 말해 전쟁 상태에 있는 최대 라이벌인 남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며 "남한 국민 살해는 문 대통령의 대북 관계 개선 의지에 큰 타격을 줬다. 북한이 빠르게 반성을 표명해 화해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김정은이 공무원 살해 관련, 남한에 희귀한(Rare) 사과를 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 군인들의 해역에서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에 주목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는 10년 전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 NYT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정면돌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CBS 뉴스는 "북한 지도자가 남한에 분명히 사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특히 사과 메시지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과 맞물려 한국 내 비판론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것에 주목했다. CBS는 "문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한국 내 반복 감정을 완화해 긴장을 완화시켰을 뿐 아니라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잠재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 BBC 방송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며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또 BBC는 2010년 천안함이 피격돼 승조원 46명이 숨졌을 때도 북한이 사과를 내놓지 않았던데서, 북한이 남한의 사과 요구에 응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짚었다.

미국 국무부도 25일 남측 공무원 사살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와 관련해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의 이례적 공개 사과를 통해 추가적 상황악화를 막게 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소보다 신속하게 국무부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살해된 한국 공무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는 이번 일에 대한 동맹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에 대한 한국의 요구를 완전히 지지한다"고 답했다.

코로나 시대 커지는 빈부격차...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던 빈부 격차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팬데믹 이후 교육, 공공보건, 일자리 등에서 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빈곤층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팬데믹이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가난한 아이들 원격 수업 받기 어렵다. 로이터 통신은 "새로운 '가상학습의 시대'는 볼리비아의 심각한 빈부 격차를 조망하고 있다"면서 "볼리비아 통신당국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0%, 도시가 아닌 지역에선 3%의 인구만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유엔 산하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남미 전체 인터넷 보급률은 67%지만 국가·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인터넷 연결이 잘 되는 나라에서조차 농촌 등 외곽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은 40-50% 수준이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지방의 인터넷 보급률은 10%도 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은 바이러스에도 취약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5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제출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숨진 21세 이하 미국 국민 중 히스패닉과 흑인, 미국 원주민이 75%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소수인종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보험을 들지 않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국가간 경제력 차이는 백신 확보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국제구조단체 옥스팜은 세계 인구의 13%가 사는 부유한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의 51%를 이미 사들였다고 지적했다. 난민들에게 코로나19가 재앙이다. 난민캠프에선 거리두기를 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 실업 때문이다. 특히 팬데믹 와중에 저학력·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더 많이 사라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 세대'라는 제목

의 기사에서 "위기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한다"면서 "미국 내에서 대졸자 실업률은 4.8%포인트 올랐지만,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두 배인 9.7%포인트 올랐다"고 보도했다. 저소득층의 실직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한다.

옥스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전 세계에서 4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러나 중남미 지역 역만장자 73명의 재산은 3월 이후 총 482억 달러 늘었다.

부부 함께 키운 아이가 정신질환↓

프랑스에서 남성 출산휴가가 기존의 두 배인 28일까지 늘어난다. 부부가 함께 육아를 하는 것이 평등하며, 부부가 함께 키운 아이가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내년 7월부터 현행 14일에서 28일로 늘리고 그 중 7일은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의 80%가 '배우자 출산휴가가 너무 짧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면서 "세상에 나온 아이를 얼마만 돌봐야 할 이유는 없다. 더 큰 평등을 위해 부부 모두가 아이를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난 데는 아이가 생후 1000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보건부는 홈페이지에 "생후 1000일 동안 아이의 키는 한 달 평균 2cm씩 자라고, 뇌의 크기는 5배로 커지는 등 인간의 한 생애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 신경정신과 의사 보리스 시틸니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어떻게 하면 생후 1000일을 제대로 보낼 수 있을지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문가위원회는 지난 8일 연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9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4주로 정해진 건 프랑스 정부와 전문가들의 타협안인 셈이다.

출산휴가는 아이의 친부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다. 또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하는 동거를 하고 있다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7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틸니크 위원장은 BFM방송 인터뷰에서 "북유럽 국가 사례를 살펴보면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봤을 때 아이의 문맹률이 현저히 낮아지고, 정신질환도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중공, 전국민 각종 생체데이터 수집

(1면에서 계속)

이하 ASPI)에서 간행됐다. 중공이 중국 국내법은 물론이고 국제 인권표준을 위반했음을 고발하며 그로 인해 '국가로서 중국이 가지는 힘이 강해졌음'은 물론이고 사회 안정 유지와 사회제어의 미명하에 중국 내에서 각종 탄압이 자행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최대 1억 명, 최대 1억4천만 명의 신상 정보가 등록돼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이 사업은 조만간 종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라 트로브 대학(La Trobe University)의

정치·미디어·철학과 학과장 겸 부교수이며 ASPI 비상근 선임 연구교수이기도 한 제임스 레이볼드(James Leibold)와 토론토 대학(University of Toronto) 정치학과 박사과정생인 에밀 디르크스(Emile Dirks)는 돈 냄새를 좇아 미화 14억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는 중국의 이 사업에 뛰어들어 외국 생물공학 기업들을 조종하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권유린범죄에 연루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ASPI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법의학 DNA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있어서 중국 경찰,

중국 기업 및 다국적 기업의 긴밀한 협업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사례다.'

중국 정부가 낸 입찰서류, 구매 주문서, 공안국이 웨이보(微博) 및 웨이신(微信, 즉 위챗)에 올린 글, 국내 뉴스,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글, 협업문서, 홍보자료 등 7백 건 이상의 공개 문서들에 기반한 이 보고서는 '각종 문서에 이미 입증된 신장의 바이오(bio) 감시 프로그램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중국 사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수백만 명에 달하는 중국 시민들의 인권과 시민으로서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새로운 증거다.

'DNA의 법의학적 사용으로 범죄를 해결하고 인명을 구조할 수

도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차별적인 법 집행과 독재정부의 정치적 통제 모두를 강화할 위험 역시 존재한다.' 보고서에는 이런 원론적인 설명과 함께 그 조사연구 결과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엿보인다.

'중국의 일당 독재체제에서 범 죄에 대한 치안 단속과 반체제인 사물에 대한 탄압 사이에 명확한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서의 내용이다. 공안부에서 관리하는 국가 데이터베이스 시료가 상세한 가족정보와 결합한 경우, 각 시료는 '반체제 인사, 인권활동가, 소수민족 및 소수 종교단체 신자들에게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직계는 물론이고 방계 가족들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데이터 수집에서 중국이 거둔 성공을 목격한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도 자국에서 가장 취약하고 궁지에 몰린 공동체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강제 수집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유전자 감시 문제가 21세기 결정적인 윤리 문제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테크스가 한 말이다. 그러나 중국에 중공을 반대할 야당이며 독립적 사법부, 자유언론, 활발한 시민사회 등이 없다는 사실은 중국의 상황을 특히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서양의 시민사회가 중국 시민들을 대신해 나서서 중공의 인권유린을 폭로하고 대중의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결론으로, '평범한 중국 시민 수천만 명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존재는 이미 풀이 풀린 중국 정부와 공안부의 권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라고 저자들은 우려한다.

'중국 시민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감시를 받고 있다. 티베트와 신장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종교인과 청원자들도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돼 움직임을 추적당하고 있으며 감시 카메라는 중국의 도시 지역, 시골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 설치돼 있다. 강제 생체 데이터 수집의 확산은 중국 국가의 자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힘만 키울 뿐이다.'

이원론

성경은 대조법이 자주 사용한다. 대조(對照, contrast)는 상반되는 것의 차이점에 관심을 갖는다는 면에서, 서로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비교(比較, comparison)와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자. 하늘과 땅, 빛과 어둠, 낮과 밤, 아침과 저녁, 땅과 바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등이 대조되어 있다.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새 하늘과 새 땅"을 포함하여 대조되는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대조법은 성경의 핵심내용인 복음을 설명할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 죄인과 의인, 천국과 지옥, 생명과 죽음, 선택과 유기, 현세와 내세, 그리고 양과 염소의 구분 등 셀 수 없이 많다.

이원론(二元論, dualism)은 대조법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매우 유사하다. 그러므로 성경의 대조법에 익숙하면 이원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원론의 핵심은 대조를 이루는 근본원리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대조'의 다른 표현은, 두 개체 간의 '갈등' 내지는 '투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독립된 개체가 상대를 밀쳐내어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향 때문이다. 한 예로, 이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은 상반되는 두 세력이 지속적으로 힘겨루기를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과 악은 상대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존재할 수 없는 이원론의 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이원론 사상은 기원전 4-5세기에 활동했던 고대 그리스 아테네 출신 철학자 플라톤(Plato)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의 이원론은 두 세계, 즉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의 대립관계를 중시한다. '이데아의 세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완전한 곳이나,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의 세계'로서 불안정하고 열등한 곳이다. 이 내용은 플라톤이 사용한 '동굴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현상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은 동굴 안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런 복사된 세계를 벗어나 동굴 밖으로 나아가 태양을 바라보아야 참된 세계를 볼 수 있다. 플라톤은 인간 속에 두 개의 상반되는 세계가 공존한다고 하였는데, 영혼을 육체보다 뛰어난 존재로 여겼다. 육체는 그 안에 감옥과 같이 영혼을 가두어 놓고 오염시켜 신성을 알 수 없게 한다. 그 결과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 천상의 이데아 세계로 돌아가려는 열망 속에서 살아간다.

초대교회는 플라톤의 이원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육체에 임시로 머물고 있는 영혼이 원래 자신이 살고 있던 영원한 신적 세계로 돌아간다는 영혼불멸설을 좋은 예로 꼽을 수 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가 플라톤의 철학 자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시하던 성육신 교리가 이원론과 대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로부터 내재적 세상과 초월적 세상을 구분하는 서구 전통의 이원론적 사고가 시작되었다.

이원론 사상은 교회사 모든 시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 중 성도들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성육이원론으로, 현실 속에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대립하며 존재한다는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이 이원론은 성도들에게 하나만 옳고 다른

게 주관적이다. 각자가 지닌 고유의 종교성과 처한 상황으로부터 받는 직접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성스러움'에 대한 개념이 인간의 본능적 종교의식과 연관되면 더욱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 신은 인간과 구분되는 신비스러운 존재로서, 우상숭배가 성행하는 곳일수록 이 신과 연관된 성스러움을 중시한다. 각자 추구하는 신과 연관된 성과 속에 대한 정의는 극히 사적이다.

넙과 한국인의 고유 종교심이 혼합되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 기독교가 시작될 때의 상황을 살펴보자. 초창기 교회를 찾은 사람들은 농촌에 거주하던 평민들이었다. 선교사들이 직접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순회전도에 힘쓴 결과, 초기부터 도시보다 지방에 예배처소가 많이 생겨난 것이다.

초기 성도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중심의 보수적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신봉하였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상하간의

인들은 전통적으로 악한 악마의 횡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을 지닌 절대자를 인정하는 종교성을 지녔다. 자연히 그 절대자와 연관된 장소와 사람을 신성하게 여겼고, 이는 성과 속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한국의 역대왕조가 명산을 선정하여 제사를 거행하였다. 이는 산에 살며 산을 다스리는 신령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제사 장소와 인도자들은 세상의 것과 구별되는 신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섬겼다.

생활주변에서도 장소와 사람을 신성시 하는 경우가 있었다. 각 마을 주변에 성황당이 있었는데, 돌을 쌓거나 나무에 실과 천 등을 매달아 놓음으로 도시를 수호하는 신의 영역임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중병에 걸렸거나 불운에서 탈출하기 위해 찾았던 내림굿을 하는 박수무당 역시 일반 사람들과 급이 다른 신성한 자로 여겨졌다.

초기 성도들은 성육이원론의 영향으로, 교회당을 세상의 건물과 대조되는 성스러운 장소로 간주하였다. 또한 목회자를 대할 때에 세속직업과 구분되는 성직을 맡은 자로 대하였다. 절대자인 하나님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재에도 성육이원론의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 몇 가지 예로 들어보자. 하나님은 교회당에서 드리는 기도, 특히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더 잘 들어준다고 믿는다. 교회 내에서 사용되는 집기와 가구를 성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강대상이 놓여있는 곳을 구약시대의 지성소로 간주하고 오직 자격을 가진 자만 그곳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21)

교회가 가르친다.(8)-성육이원론의 틀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것은 틀리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도록 하였다.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에 속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무엇을 버리고 취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

힌두교는 암소를 신성시 한다. 차도에 소가 누워있으면 비껴가고, 그럴 수 없다면 소가 자발적으로 일어나 떠날 때까지 기다린다. 힌두교의 특징인 암소숭배의 기원이 매우 흥미롭다. 과거 심한 가뭄 시 사람들이 마구 소

수직적 계급 차이가 유지되고 있던 때였기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평민들은 종교적 경험을 통해 건강한 자존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항상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성육이원론은 주관적 기준으로 인해 교회역사에 많은 문제야기 세상 살면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 기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훌륭한 신앙인은 오직 성스러운 것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긴장감 속에 살아가야 한다.

성육이원론

그렇다면 성육이원론은 무엇에 근거하여 성과 속을 구분할까? 물론 성경적의 가르침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상 문자적인 내용을 넘어 '신성'이란 개념을 절대화 시킨다. 신성은 신성한 존재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초월된 의미가 강조될 때 사용된다.

신성과 세속의 개념을 구분함에 있어 성육이원론이 지닌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 성스러운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분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가치 기준이 지나치

를 잡아먹는 결과 발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버티를 얻지 못하게 되자, 암소를 신성시 하는 관행이 생긴 것이다. 또한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반영하듯, 그들은 자유로운 신분인 거룩한 소와 노동에 사용되는 소를 구분하기도 한다. 다른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은 이와 같은 힌두교의 신성기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는 유대인들이 성과 속을 구분하는 신앙적 신념에 의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을 성서하게 생각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한국교회 성육이원론

한국교회의 성육이원론은 초기 선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이 지녔던 성과 속에 대한 구분 개

있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서양에 대해 눈을 뜨고 있던 상황가운데 광배했던 사대주의적 사상의 영향도 중요한 이유였다. 서양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로부터 서양의 문화를 접함으로 자신들이 격상된다는 확신도 무시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초기 성도들은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사상을 평가할 만한 지적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열강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경을 이겨내는 큰 힘을 제공받는 상황 속에서 반론을 제시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만한 인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나아가서 한국인 고유의 종교성으로 인해 성육이원론이 한국교회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 한국

성육이원론의 폐단

초대교회는 성육이원론의 사상으로 인해 영적 도전을 받은 경험을 하였다. 이는 영과 물질이 극단적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 영지주의자들이 때문이었다. 그들은 완전하고 초월적인 신은 결코 이토록 불완전한 이 세상의 물질을 창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높은 차원의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 창조론, 성육신, 삼위론, 그리고 구원론을 포함하여 성경적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였다.

초대교회 대표적 교부 어거스틴이 한때 심취하였던 마니교(Manichaeism) 역시 대조되는 이원론에 기초한 이단종교였다. 마니교는 빛과 어둠은 이 세상에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관계에 놓여있다는 신비주의적 종교체계를 갖추고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9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Columns include church names like '갈보리장로교회', '몽고메리교회',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벤델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살롱장로교회', '시애틀평강장로교회', '안디옥교회', '알칸사 제자교회', '앵커리지열린교회', '엘파소열린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온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주예수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리더십 코멘터리 (120)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뉴노멀시대 변혁적 리더십

공동체의 운명이 리더에게 달려있다

영국 BBC에서 제작한 동물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 50여 년간 인기리에 방영되는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나 인간의 세계에서나 함께 무리를 형성하면 그곳에는 항상 리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주변에 리더라는 감투를 쓰고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원초적인 힘이 지배하지만, 인간 세계에서는 힘으로 다스릴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다르게 만들 수는 없다.

리더와 리더십이 항상 같이 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리더는 역할을 정의하는 단어이지만, 리더십은 영향력을 말하는 단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회나 교회나 공동

하여 이끌고 다스리는 리더들도 있다.

두 번째의 요소인 권위(authority)는 주어진다고 인정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대사로 임명되면 임명권자에 의해 그 권위가 인정된다. 세습으로 리더의 지위를 계승하는 것도 이 권위 때문이다. 한 분야에 놀라운 지식이나 지혜가 인정될 때도 그 분야에서는 권위를 가지게 된다. 부족하고 실패한 리더는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권위에 의존하게 된다.

세 번째 요소는 자리(position)이다.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고 조직이 형성되며 전통이 깊어질수록 리더의 지위에 대한 상세한 권한과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고 성문화된다. 자리(지위)는 힘이 있다고 또는 권위만 가지고 주어지지 않는다. 공동체의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의해 리더의 자리는 책임자라는

인격과 품성 그리고 자질이 일하고 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리더십은 기술이나 힘의 문제가 아니다. 리더십을 인기(popularity)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또한 리더를 관리인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리더는 전문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아니다. 미래세계를 인도할 진정한 리더는 한 단체의 목표를 설정해서 분명히 하고 그 무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동원해서 함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인격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위기 속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자

목회자들이 처음 만나면 꼭 주고받는 몇 가지 말이 있다.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교단 소속이냐? 나이는 몇 살이냐? 세속적인 방법으로 서열을 정하고 옥석을 가려보자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다. 진정한 영적리더십은 세속적이고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데서 근거해야 한다. 영적 권위는 인간이 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은 권위이어야 하며 자리는 상석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는 자세로 낮은 자리에 목회자의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눈을 속여 인위적으로 조성한 카리스마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은사를 겸손히 행사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신실한 말씀 선포와 기도를 통한 부흥과 갱신이 없이는 위기

미래 교회 이끌 변혁적 리더의 4가지 조건은 힘, 권위, 자리, 카리스마 영적권위는 인간이 주고 인정받는 것 아닌 주께 부름 받고 사명 받아야

체의 운명이 탁월한 리더의 현명한 리더십에 달려 있다. 영적리더란 한마디로 기술이나 정치적 수완이나 특정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다. 이 중재체란 위기의 순간에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서 사회와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변혁적 리더의 4가지 요소

기독교의 위기는 리더십에 원인이 있다. 영적리더들의 영적, 도덕적 권위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교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변혁적 리더가 갖추어야 할 4가지 근본 요소가 있다. 힘, 권위, 자리, 카리스마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요소인 힘(power)은 가장 원초적인 요소이다. 영향력이 부족한 리더는 힘을 주된 방편으로 사용한다. 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물리적인 힘, 정복하고 겨루어 이기는 힘, 다스리는 힘, 거래하는 힘, 돌보는 힘 그리고 오늘날은 정교력으로 힘으로 간주한다. 이 힘으로 리더가 되기도 하고 이 힘에 의존해 무리를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강압

이름으로 주어진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것은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이 일차적인 고려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네 번째 요소인 카리스마(charisma)는 초인적인 능력이 인정될 때 가지게 된다. 독재자들이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도 결국 이 카리스마 때문이다. 카리스마의 리더들은 실제보다 더 신비스럽고 크고 위대하게 보이게 되어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성불가침의 경외감을 가지게 한다.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먼 거리에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대는 마스크의 영향력을 통해서 리더의 카리스마 이미지를 극대화해 인위적이고 심지어는 날조된 이미지를 조성하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특히 카리스마는 영적리더들에게 많은 유혹을 주고 있다.

인격과 영향력을 갖춘 리더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을 전제한다. 따르는 사람이나 그룹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다. 리더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성경으로 되돌아가 부흥과 갱신운동을 이끌어 변혁적 리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리더 선발과 리더십 훈련방법을 혁신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고 결과가 늦어지더라도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킬 리더를 개발하는 일을 사역의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변혁적 리더는 리더십의 원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철저히 따라야 하며 좋은 학교 출신이거나 기술이나 정치적 수완이나 특정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모범에 따라 겸손한 자리를 찾을 때, 한국 교회는 위기를 벗어나 이 전보다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절박한 사명이다. 지금은 위기의 순간에 변혁적 리더들이 가장 작은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담대히 제시해야 할 때이다.

sdongwon@gmail.com

성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승리하는 사람들의 필수 조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자, 후대에 가장 존경스런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제화공이었습니다. 링컨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미 의원들은 신분이 낮은 제화공의 아들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링컨의 약점을 찾아서 헐뜯기에 열안이 돼있었지요.

링컨이 취임연설을 하기 위해 의회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나이 많은 한 의원이 링컨을 향해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링컨, 당신의 아버지는 한 때 내 구두를 만든 사람이었소. 물론 이곳에 있는 상당수 의원들의 구두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들었지요. 그런 천한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아마 당신 밖에는 없을 것이오!”

의원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링컨의 반응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불쾌한 표정 대신 오히려 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취임연설 전에 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구두 예가였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정성껏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링컨의 말을 들은 의원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한 링컨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점점 더 국민들 앞에 신뢰를 얻었습니다. 절제의 성품으로 미국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게 되었지요.

절제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성경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잠언 25:28)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나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절제의 성품이 없다면 이런 위험을 앞에 놓고 달리는 인생과 같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절제는 불에 장작을 넣는 것이요, 통에 음식을 넣는 것이며, 물 함자에 밀가루를 넣는 것이요, 지갑에 돈을 넣는 것이며, 나라의 신용을 얻는 것이요, 가정에 만족을 얻는 것이며, 자녀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요,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며, 두뇌에 지력을 넣는 것이요, 전신에 활기를 넣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꿈(vision)을 이루며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인생이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고전 9:25) 말씀을 따라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독서(월-금): 오전 5:30 토요일영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8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c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청담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5-4499, www.lalgc.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인교회 옆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교교회 옆 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Tel: (310)749-475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8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은송 목사 (LA)세움연합교회와 협동목회 상임사역: (월-금) 오전 9시-오후 4시(30분) 사역대상: 2. 교회 회원님들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례) 3. 말씀사역 4. 특별교회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c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26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배: 오전 9:45(101동)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g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아침같이 일어나서”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ck.kim@jlo.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그 길

나는 길에 대한 환상이 있다.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길을 보면 기분이 참 좋다. 이 길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 길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까? 이 길 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 위에서 웃고, 울고, 절망하며, 떠나며, 돌아와며, 또는 꿈을 찾아 이 길을 따라갔을까? 그래서 나는

길을 배경으로 하여서 사진을 찍는 것을 참 좋아한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길은 어디일까? 아마 라우트 66번(Route 66) 길일 것이다. 이 길은 미국 최초로 동과 서를 가로 지르는 길로서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시작하여서 캘리포니아 주 산타모니카 피어 위에서 끝이 난다.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 이 길 이 나온다. 당시 세계

대공황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부채와 가난을 피해서 서부로 가기 위해 사용한 길이 그 길이다. 존 스타인벡은 그 길을 '어머니길'이라고 불렀다. 라우트 66번을 통해서 수많은 곁길들이 생겨났으며, 또한 그 길은 땅과 집을 빼앗기고 절망과 분노를 안고 도망가던 모든 사람들을 안아준 길이라고 말한다. 그 길은 절망으로부터의 도피



강인국 목사 (미시야나한인교회)

를 위한 길이지만,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준 길이기도 하다. 오늘도 길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간다. 과연 그들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 다음의 글은 이스라엘의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쓴 '인간의 길'이라는 짧은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내가 조금 각색을 해 보았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분주하게 움직인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빗고, 얼굴에 로션도 바르고, 원하는 옷과 넥타이를 입기 위해서 집 전체를 다 뒤져서 옷을 차려입고, 양말을 신고, 구두를 닦고, 마침내 방문을 나선다. 그러다가 그가 갑자기 자신에게 묻는다, "그러나,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이것은 사람의 모습에 대한 풍자이다. 사람은 매우 분주하게 살아간다, 정신없이 바쁘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딘가 갈 곳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세상에는 유명한 길들이 많이 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 제주도의 올레길, 캘리포니아에 가면 서부해안 절벽을 따라가면서 건설된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가 있고, 뉴욕에 가면 금융기관들이 즐비한 월 스트리트와 유명한 극장들이 있는 브로드웨이가 있고, 시카고에 가면 매그니피센트 마일이 있다.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순례하고 우리 마음에 소유해야 할 길이 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요14:6)라고 말씀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고 하셨다. 마치 라우트 66번 길이 마음에 절망과 분노와 눈물로 가득한 사람들을 받아주었듯이, 주님은 친히 자기 자신이 길이 되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에 안으시기 원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쉬게 하시고, 소망의 나사로 인도해주시기 원하신다. 이 시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을 지나가고 있다. 이 어둠의 끝이 어디인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참된 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떤 시련과 절망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무사히 완주할 수 있다. cyd777@hotmail.com

김안세, 이용재 목사안수식도

KAPC 서남노회 제 67회 정기노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 서남노회(노회장 민중기 목사)는 제 67회 정기노회를 9월 22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노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노회장으로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가 사용됐다.

정기노회 후 당일 오후 6시 대흥장로교회 분당에서 열린 목사안수식에서는 김안세 전도사(세리토스장로교회)와 이용재 전도사(대흥장로교회)가 목사안수를 받았다.

노회서기 김충한 목사 사회로 열린 안수식은 김성규 목사(주백성교회) 기도, 김명균 목사(가스펠교회) 성경봉독, 민



KAPC서남노회에서 실시한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받는 목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중기 목사(충현선교회)가 다메섹 유다의 집에 임한 은혜(행9:10-21)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민중기 노회장 집례로 목사안수식이 거행됐는데 안수식은 서약, 안수, 악수례, 선

포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박규성 목사(세리토스장로교회)가 권면을, 김현수 목사(토렌스선한목자교회)가 축사했다. 이날 안수식은 이용재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유한교회가 창립3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사랑나눔 행사가 미주복음방송 주차장에서 열렸다

쌀과 마스크 등 배부...미자립교회 선정 지원

남가주유한교회 사랑나눔행사 드라이브 드루로

남가주유한교회(담임 장범원 목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한 사랑나눔 행사를 9월 28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미주복음방송과 캠퍼스에서 열었다.

장범원 목사는 "이번 사랑나눔 행사는 저희교회 설립 3주년을 맞아 성도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며 "선교적 마인드 갖고 있는 성도들 많이 감사하다. 20파운드 쌀 한 포대와 마스크100개, 5개들이라면, 손세척 티슈를 담은 구디백을 나누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4개 미자립교회에 각각 1000달러씩 지원하는 행사를 가진 남가주유한교회 재능담담회 최미나 집사는 "지난 5월 담임 목사로부터 체크 한 장을 전달받았다. 체크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한 행사에서 받은 것이었는데 체크를 확인하는 순간 머리를 크게 맞은 기분이 들었다. 왜냐하면 저희교회는 설립된 지 3년 된 교회이고 자체건물도 없지만 재능적으로 어려운 교회는 아니며, 저희교회 때문에 꼭 필요한 교회가 지원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목사님께 건의해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미자립교회 돕기 행사를 열었고 14교회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최 집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미주복음방송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쓰루 형식으로 차 트렁크에 준비된 물품을 봉사자들이 실었다.

한편 본 교회는 미자립교회 1교회를 선정해 1년간 매달 10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한 기도 끝에 남가주어노인교회(담임 남상권 목사)가 1년간 매달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장범원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사회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시련이지만 오히려 이웃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성도들은 긍휼한 마음을 갖게 돼 감사하다. 이웃들과 교회들을 더 많이 섬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가을 정기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가을 정기모임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회장 이병홍 목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지난 28일 모임을 가졌다.

오후 12시30분 플러싱 블루베이 다이너에서 가진 가을 정기모임에서 회장 이병홍 목사는 아이티 박병준 선교사의 선교편지를 전하며 코로나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 특별 기도를 요청했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선교지에 우물을 파고 염소를 나누고, 농장을 일구고, 교회를 부흥시키며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 미동부지회는 사역에 동참할 일꾼을 찾고 있다.

▲연락처: (917)224-2000 이병홍 목사, (718)281-0442 김희숙 목사 <기사제공: 국제사랑재단 미동부지회>



고 한화영 원로목사 천국입성예배 후 유가족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 한화영 목사 천국입성예배

남가주웰로십교회 원로목사인 고 한화영 목사 천국입성예배가 22일 오후 5시 남가주웰로십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유가족들과 예배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박혜성 담임목사 집례로 성직제 장로가 기도했으며 박혜성 목사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딤후 4:7-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고인의 삶을 담은 추모영상이 소개됐으며 강경영 집사가 조가를, 한성욱 목사가 조사를 하고 한해경 미안마 선교사의 고인을 회고하는 메시지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이날 예배는 김기수 장로가 고인의 약력을 소개하고 집례자의 축도로 마쳤다. 고 한화영 목사는 1937년 8

월 17일 일본 궁기현에서 출생했으며, 1959년 12월 23일 정대순 사모와 결혼, 2남3녀 자녀와 10명의 손주를 두었으며 지난 9월 18일 오후 5시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계명대학교 영문과,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뉴질랜드 낙스신학대학원 졸업(Th.M), 샌프란시스코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과정 수료, 트리니티신학대학원 기독교교육학박사(D.C.E), 남침례교 성서신학학술원 철학박사(Ph.D)를 취득했다. 1965년 9월 예장통합 진주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한국과 호주에서 사역했으며 1996년 6월부터 해외한인장로회 서남노회 늘사랑교회 위임목사로 12년간 사역 후 은퇴했다. 2008년 1월부터 남가주웰로십교회에서 원로목사로 출석해왔다. <박준호 기자>

AM1190 미주복음방송 공개 헌금의 날 2020년 10월 9일(금) 오전 8시 - 오후 7시 30분

미주복음방송 공개헌금 및 후원자모집 행사

10월 9일(금) 12개 부스 마련, 예방접종도 실시

미주복음방송(AM 1190, 사장 이영선 목사)는 10월 9일(금) 하루 동안 생방송을 통해 GBC 미주복음방송의 사역을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헌금 및 후원자를 모집하는 날 행사를 갖는다.

이번 모집행사는 LA와 OC 지역에 12개의 부스(에너하임 본사 주

차장, LA스튜디오, 플러튼 한남체인, 부에나팍 H마트, 플러튼 아리랑마켓, 라팔라 한남체인, 가든그로브 아리랑마켓, 다이아몬드바 한남체인, 나성순복음교회 주차장, 충현선교회 주차장, 남가주 살롬교회 주차장, 알바인 온누리교회 주차장)를 마련하고 방송진

행자와 후원자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

특집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각 부스를 방문해 헌금하는 자들에게 2021년 탁상을 캘린더와 선물(Goody Bag)을 증정한다.

또한 일부 교회 주차장에서 진행되는 부스는 Drive Thru 헌금이 가능하며, 서울메디칼 그룹과 남가주 한인 간호사협회 후원으로 Drive Thru 독감 예방접종도 성인 대상(18-65세 까지)으로 함께 진행한다.

예방접종 장소는 5개 지역 주차장(미주복음방송 본사, 나성순복음교회, 충현선교회, 남가주 살롬교회, 알바인 온누리교회)이며 집중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문의: (714)484-1190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개혁의 땀방울 - 무엇을 기대할까...

<7면에서 계속>

그러나 어거스틴은 허구적인 환상주의에 회의를 느낀 뒤 마니교를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그의 신학적 질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그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의 영적 대립 또한 영원의 영역과 시간의 영역 사이의 분리 등을 통해 이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한 성경적 개념 형성에 절대적으로 기여하였다.

중세교회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제도적 교회를 드러내는 이원론을 크게 발전시키고 정착시켰다. 샤를마뉴 대제(Charlemagne 또는 Charles the Great, 742-814)는 어거스틴의 글을 오해하고, 유럽 대규모 영토에 기독교제국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려고 했다. 그는 로마를 점령하여 귀족에게 축출당한 교황 레오 3세(Leo III, 816년 사망)를 도와 주었고, 그 대가로 로마황제에 오르고 신성로마제국을 창시한

것이다.

1000년의 중세교회는 유럽이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세워지고 몰락하는 모습을 함께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회와 세속 또는 교황과 황제의 갈등은 낡은 성속이원론이 끼친 영향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탁월한 지도력을 지녔던 교황 그레고리 7세(Gregory VII, 1020-1086)는 '교황절대주의(papal absolutism)'의 기반을 놓았다. 그러나 교황과 황제 사이의 갈등이 날로 커져갔다. 교황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교회가 세속 권력위에 놓여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이에 반하여 황제 역시 교황과 교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키웠다.

두 세력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은 권력욕을 향한 인간의 교활함과 사악함을 천하에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힘은 잃어갔다. 동방교회는 물론 세속 황제가 기독교 수장

보다 높은 권위를 지녔다는 황제교황주의(Caesaropapism) 제도 아래 있었다. 심지어 향후 교회역사에는 왕이 교회수장이라는 왕권신수설(Divine Right of Kings)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성속이원론을 넘어

중세교회에서 틀을 잡은 성속이원론은 교회와 세속의 갈등으로 대표되지만 성도들의 삶과 신앙의 영역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교회에서 하는 예배, 기도, 봉사, 성경공부, 전도 같은 일은 신성하지만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심지어 취미생활과 운동 등 여가를 즐기는 것들까지도 세속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발달하였다. 교회와 세상 사이의 분명한 선이 그려진 것이다. 구원은 오직 교회 안에 있다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각종 성례를 통해 은혜를 주입 받으려면 반드시 교회를 찾아야 했다. 나아가서 오직 성직만 거룩하고 세상의 직업은 성스럽지 못하다

는 성속이원론 역시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성속이원론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성과 속을 구분하고, 세속 영역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를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며 그의 통치와 섭리를 부정하고 도전하는 오류를 범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 안과 바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세상과 담을 쌓고 종교적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기대하신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편견과 오류를 과감히 깨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covenantcho@yahoo.com

교계 기사판

개인 재정관리 온라인 세미나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위한 뉴욕 주 사무소와 뉴욕가정상담소, Asian American Federation 그리고 Radius Bank 공동 주최 개인 재정관리 세미나가 10월 16일(금)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예산관리, 저축, 은행계좌, 노후대책, 칼리지 펀드, 금전적 가정폭력, 금융사기 의식고취 등의 주제에 대해 강의로 무료다.

▲문의: gilsang.jo@kafsc.org (917)887-9173

무료 온라인 예배 섬김

무료 온라인 예배 섬김을 안내한다. △설교 또는 찬양을 각각 30분 이내 녹음, 촬영 후 기본 편집해준다. △예배전 사용할 간단한 음원과 영상 및 썸네일을 무료로 지원한다. △현장 녹화 위치는 뉴저지북부 웨스트우드에서 위치한 Anointing Church에서 하게 된다(녹음과 녹화는 최소 인원으로 진행). △온라인 스트리밍 셋업 및 운영에 관해 상담하며 전화 또는 영상으로 가능하다.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스케줄에 따라 제한적으로 진행한다.

▲문의: (201)314 6232, anointingchurchnj@gmail.com

토요한글학교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 토요한글학교 가을 학기가 9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줌으로 열린다. 참가대상은 4살부터 중학생까지이며 등록비는 20달러.

▲문의: (718)229-0858, (646)533-0484

제42회 HYM 청년연합집회

HYM(대표 더글러스 김 목사)가 주최하는 제42회 HYM 청년 연합 집회가 10월 3일(토) 오후 6시에 온라인으로 열린다. 이번 집회 주제는 '귀히 쓰는 그릇(딤후2:20-26)'이며 강사는 피세원 목사(오렌지한인교회 담임)다.

▲문의: (714)393-5135

오렌지한인교회 현장예배

오렌지한인교회(담임 피세원 목사) 현장예배가 10월 4일(주일) 재개된다. 예배시간은 오전 10시 2부 예배시간에 갖게 되며 1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갖게 된다. 1부 예배(오전 8시)는 종전대로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로 갖게 되며 2부 예배 역시 현장예배와 더불어 유튜브 라이브로 갖는다.

▲문의: (714)871-8320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전국대회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는 이승만 대통령의 날 기념 및 6차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 전국대회를 10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개최한다. 일정은 1일(목) 오전 9시 공병호 박사 환영 조찬기도회를 SS레인빅토리오에서 가지며 오전 11시 제1회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날 기념 골프대회를 West Ridge Golf Course La Habra에서 갖는다. 2일(금) 오전 9시 김승현 회장 초청 공병호 박사 환영 조찬기도회를 SS 레인빅토리오에서 갖고 오전 11시 대한민국민회를 방문한다. 그리고 오후 6시 SS레인빅토리오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날 기념예배 및 세미나를 갖는다. 3일(토) 오전 10시30분 재단회의를 있으며 오전 11시30분 이승만 대통령의 날 및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축하 기념식을 갖는다.

▲문의: (754)779-5887

뉴욕교협 제47회기 정부회장 후보등록 공고

회장후보 문석호 목사, 부회장후보 2명 경선 예상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민석 목사)가 제47회기 정부회장 임후보 등록 접수 공고를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재홍 목사)는 9월 23일부터 10월 2일(금) 오후 3시까지 회장, 부회장, 감사 임후보 등록을 받는다. 회장 후보는 현 부회장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의 등록이 예상된다. 부회장 후보로는 김요셉 목사(예수생명교회)와 김희복 목사(뉴욕주천양교회)가 이미 출마선언을 해 경선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가나다순). <유원정 기자>



살롯장로교회 설립 43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

“더 발전하고 영향력 끼치는 교회로”

살롯장로교회 설립 43주년 감사예배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 설립 43주년 감사예배가 9월 27일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약 2달간 영상 예배를 드려온 살롯장로교회는 20일부터 본당예배를 재개했다. 거리두기로 진행된 이날 예배에서 나성근 목사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설교하면서 “우리도 본을 참인 진정한 이웃사상이요 더욱 발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힘차게 전진하자”고 설교했다. 이날 대표기도를 담당한 선민

전기현 장로는 “1977년 8월 28일 지역에서 최초의 아시안 교회로 설립예배를 드린 후 현재 110개의 아시안 교회가 생기게 됐다”며 “모교회로서 계속 영향력을 끼치며 모범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날 또한 미뤄졌던 각급 주일학교 졸업예배를 함께 드렸다. 고등부 2명, 중등부 2명, 유치부 1명을 축하하고 주일학교 담당 교육 발전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힘차게 전진하자”고 설교했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LIVE” 청소년들이 더 힘들다...

2020청소년할렐루야대회 온라인으로 성료

지난 9월 25일과 26일 2020 청소년할렐루야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에스겔 37장 말씀을 토대로 한 “LIVE”란 주제로 집행부 및 선착순 신청자 30명만 뉴욕수정성결교회(담임 황영송 목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원래 대회는 프라미스교회 주차장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음향시설 등 장비추가 비용(4천6백 달러)을 감당 못해 뉴욕수정교회로 옮겨졌으며 따라서 현장참여는 30명에 한했다. 첫날 강사 자쉬아 김 전도사(Pursuit NYC)는 다니엘서 3장 1-29절을 본문으로 “The Power of a life set apart”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성결한 삶을 도전했다. 둘째 날 저녁에는 패트릭 최 전도사(아름다운교회)가 요한복음 21장 9-19절을 본문으로 “Seasons of disappointment”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강사 2명은 모두 지역 사역자들로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 효과적일 말씀을 전할 수 있다.

대회는 유튜브 생방송만 아니라 줌(Zoom)을 통해 예배 중에 참여 청소년들과 접촉했다. 비대면이지만 참가자들을 터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준비했



온라인 동시 진행된 2020청소년할렐루야대회 준비팀들이 첫날 대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청소년할렐루야대회에 앞서 2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김준현 사무총장, 앤드류리 전도사, 황영송 목사, 사무엘리 전도사.

다. 현장에 참가한 학생 중에 기도가 필요한 학생은 친교실로 가서 기도해주는 팀들이 있으며 줌으로 접속된 청소년들도 상담이나 기도 요청을 하면

줌으로 1대1 상담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에 앞서 23일 오전 11시 대회를 준비하는 뉴욕청소년센터(AYC) 대표 황영송 목사

와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 대회 디렉터 앤드류 리 전도사(학원사역 담당)와 사무엘 리 전도사(영어권 사역 네트워킹 담당) 등 4명이 수정성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회 홍보를 당부했다.

황영송 목사는 자신이 “39년 전 뉴욕에 온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할렐루야대회에 참석하고 나중에는 스템으로 참여해왔다”며 “이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콜링 받고 사역자가 된다”며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목사는 이번 대회 뿐 아니라 청소년 사역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하며 “청소년은 한인교회의 미래이며 나아가서 미국과 세계 교회의 미래”라며 “1세대가 차세대 사역을 위해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고 한국을 포함한 미주한인 차세대는 교인뿐 아니라 사역자들도 급감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40명의 사역자 및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AYC는 5년 전부터 로컬 사역자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역해왔으며 이번 온라인 대회를 통해 사역확장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청소년대회는 첫날 뉴욕교협 회장 양민석 목사, 둘째 날은 청소년센터 대표 황영송 목사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뉴욕동노회 목사안수식도 가제

KAPC 뉴욕일원 2개 노회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 5개 노회 중 2개 노회가 지난 15일, 22일 정기노회 및 목사안수식을 가졌다. 3개 노회 정기노회는 본지 9월 19일자 참조.

가든노회

가든노회(노회장 이종식 목사)는 15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정기노회를 진행했다. 먼저 개회예배를 드리고 회부처리에 들어갔다.

예배는 노회장 이종식 목사 인도로 기도 조성훈 목사, 성경봉독 김지희 목사, 설교 이종식 목사, 축도 허상희 목사, 광고 박해창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식 목사는 마태복음 13장 18-23절을 본문으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회부에서는 △뉴저지광성교회(김지희 목사) 교회이전 허락 청원 △직전노회장 김재호 목사에게 감사패 전달 △김두해 목사(우리주님교회)에게 은퇴기념패를 증정했다.

뉴욕동노회

뉴욕동노회(노회장 박희근 목사)는 9월 22일 오전 10시 뉴저지 아가페장로교회에서 87회 정기노회를 대면으로 열었다.

개회예배는 박희근 목사 인도로 기도 이규섭 목사(부노회장), 성경봉독 차석희 목사(부서기), 설교 노회장, 축도 이길호 목사(전 노회장), 광고 문덕연 목사(서기) 순서로 진행됐다. 팬데믹으로 성찬 예식은 없었다.

목사 25명, 장로 1인 등 26명의 총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2부 회부는 노회장 박희근 목사 사회로 진행됐다.

회부처리를 통해 △뉴욕성실장로교회(이길호 목사) 차석희 목사 부목사 정병, 전주현 전도사 목사고시 및 목사안수 청원을 다뤘다. 또 △뉴저지열린문교회(허민수 목사)가 청원한 정유승 전도사 목사고시, 목사안수, 교육목사 청빙 청원을 다뤘다.

목사안수식

이어 전주현 전도사와 정유

승 전도사의 목사안수식이 진행됐다.

임직예배는 노회장 박희근 목사 인도로 기도 정준성 목사, 성경봉독 조성득 목사, 설교 조문휘 목사(총회장), 서약 노회장, 안수기도, 공포 노회장, 권면 허민수 목사, 축사 김남수 목사(전 총회장), 답사 정유승 목사, 축도 조영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총회장 조문휘 목사는 “얕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눅 15:3-7)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마틴 루터는 성경 중 한 장을 선택한다면 눅15장을 택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복음과 주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경은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무지한 자나 배반자가 아니라 ‘얕은 자로 본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관점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실은 나 자신이 아닌가’를 생각하자. 주님은 죄인된 날 위해 목숨을 주셨다. 의인 99명을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목회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유승 목사는 답사를 통해 “오늘 말씀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목사로 소명과 사명을 다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목사안수를 받은 정유승 목사는 한국에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침례신학대학교 목회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다 미국에 와 2014년부터 뉴저지 열린문교회 아동부 전도사로 사역해왔다. 이날 노회로부터 교육목사 청빙을 허락받았다.

전주현 목사는 뉴욕성실장로교회에서 2세로 신앙생활을 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M.Div. 과정을 졸업했다. 지금은 뉴욕빌립보교회(담임 박희열 목사)에서 사역하고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KAPC 가든노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KAPC 뉴욕동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뉴욕동노회 목사안수를 받은 정유승 목사(앞줄 오른쪽)와 전주현 목사(앞줄 왼쪽)가 인사하고 있다.

뉴저지교협, 뉴저지KCC에 방역물품전달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장동신 목사)가 9월 25일 뉴저지 한인동포회관(KCC)을 방문, 코로나19 방역물품인 핸드 세제 나타이저 60명, 손세정 티슈 100개, 비대면 온도계 1대를 전달했다.

회장 장동신 목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한인 동포사회의 일원으로서 작은 정성이나마 필요한 곳에 뜻 깊게 쓰여지기를 희망한다”며 김희선 KCC 신임 회장에게 물품을 전달했다. 뉴저지 한인동포회관은 18개월부터 90세 이상의 뉴저지 한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법

률서비스지원, 한국문화홍보와 정체성을 증진시키고,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한인커뮤니티와 미국커뮤니티, 1세와 2세 간의 가교 역할을 확대해 나가 한인사회의 발전을 돕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이날 뉴저지교협 기록회계 송호민 목사와 사무회계 김근출 장로가 동행했다.

한편 뉴저지교협은 총회를 하루 앞둔 9월 28일에도 한인밀집 지역인 레오니아 경찰서와 소방서에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기사제공: 뉴저지 KCC>



왼쪽부터 김희선 KCC회장, 장동신 목사, 김근출 장로, 송호민 목사.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21)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3)제35대 미합중국(美合衆國) 대통령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를 통한 종교다원주의의 전면적(全面的)인 개방(開封)과 활성화(活性化)

이신론(有神論)자인 제3대 제퍼슨(Jefferson) 대통령이 청교도 신앙(信仰) 파괴(破壞)와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란 사탄의 무서운 비밀(秘密) 코드(cord)를 심어 놨다면, 그것을 최후로 개방(開封)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1961년 제 35대 미합중국 대통령에 당선된 카톨릭(Catholic) 신자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이다.

특히1962년 케네디의 정교 분리 원칙에 동조한 미연방 대법원은 일명 ‘앵겔 대 비탈레’(Engel v. Vitale) 사건에 대해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는 위헌(違憲)이라고 판결하여 기도회를 전면 금지(禁止)시켰다.

이것으로 청교도의 정신과 가치관(價値觀)으로 세워진 기독교국가, 미합중국에서 반성경적, 반기독교화를 촉진(促進)하는 ‘판도라의 상자’(Pandora’s Box)가 열린 것이다.

1960년대까지 미국 전역의 각 학교 조화(照會)시간에는 특정한 기독교 예식이 행해졌다. 즉, 주기도문을 포함한 기도나 성경 구절을 읽는 예식 등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주(洲)에 따라 학교에 따라 다양(多樣)했다.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나라와 민족, 개인들을 위해 기도하던 것과 모든 성경공부가 금지(禁止)된다. 연방대법원의 정교 분리 판결이후 그 여파(餘波)로 공공장소에서 하나님과 십계명(十誡命) 조각(彫刻)이 제거(除去)된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Irony)한 것은 반성경적, 반기독교화를 촉진한 무신론(無神論) 종교인인 존 F 케네디가 매사추세츠(Massa-

chusetts)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하원과 상원의원에 당선된다. 즉, 그의 정치(政治) 기반(基盤)이 놀랍게도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정착(定着)했던 청교도들의 꿈과 비전의 “언덕 위의 도시”(city on the hill)의 거점(據點)이었던 뉴잉글랜드(New England) 지역이었던 것이다. 이견 절대 우연(偶然)이 아니다.

미국은 현재, 기독교(基督教) 국가(國家)가 아니다. “지난 1월 3일, 미국 연방의회 의원 취임 선서에서 미국 의회 역



케네디 통해 전면 활성화 된 종교다원주의, 오바마 동성결혼합법화로 만개 공립학교 내 기도회 허락 등 기독교 가치관 정책 회복 중인 트럼프 주목

사상 최초로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기타’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의원이 나타났다. 첫 번째 불교신자 상원의원도 등장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이미 두 명의 불교 신자가 있고, 6년 전 이슬람교 신자가 코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었다. 이날 의원 선서에 사용된 책은 총 9가지였다. 3종류의 기독교 ‘성경’(케톨릭·개신교·동방정교), 유대교 경전인 ‘토라’, 이슬람교 경전 ‘코란’, ‘몰몬경’, 힌두교 ‘베다’, 불교경전 ‘수트라’, 미국 헌법이다”(NEWS M 2013년 1월21일자, 미국은 기독교국가 아님니다).

(4)제43대 대통령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에 의한 반기독교, 반성경적 법제

화(法制化).

제 35대 대통령 케네디 이후 약47년만인 2008년에 제43대 대통령(大統領)으로는 선출(選出)된 최초 흑인 출신이 오바마다. 반성경적, 반기독교화를 치밀하고 계획적(計劃的), 조직적(組織的)으로 기안(起案)하여 진보(進歩) 성향 연방대법관 임명(任命)과 국회입법 및 대통령 행정(行政) 명령(命令)을 통해 전면 법제화했다. 이렇게 이신론자였던 토마스 제퍼슨의 의도(意圖)대로 사탄의 공격 빌미가 되어 입법제정

과 강제화(強制化)를 통해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종교다원주의의 활성화(活性化)와 동성애, 낙태(墮胎)를 비롯한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을 전면시행, 실시(實施)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세계적(全世界的) 시대 상황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의 종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오바마는 44대 미 대통령 선거에서 그의 3대 정치 기반(基盤)이었던 미국 내 1) 젊은층 2)저소득층 3)고학력, 특히 할리우드(Hollywood)를 중심한 동성애(同性愛) 그룹의 적극 지지(支持)에 힘입어 다시 당선(當選)된다. 재선(再選) 이후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공

개적(公開的)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 그리고 낙태를 지지(支持)하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동성애 전도사(傳道師)로 자임(自任)했다. 즉, 성소수자(性少數者, sexual minority)란 인권법(人權法)을 앞세워 제3국가와 동맹국(同盟國)을 대상으로 동성애 활성화 법(法)인 차별금지법 제정(制定)을 공개(公開) 압박(壓迫)한 것이다.

오바마는 진짜 이슬람(Is-lam)교도였다. ‘알라 밖에 신이 없다’ 즉, 샤하다(Shahada)는 이슬람의 다섯 기둥(샬라트·자카트·하즈·사움) 구성 중 첫 번째로 무슬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조(信條)의 선언문으로, 오바마의 반지 문구는 전반부(前半部)인 ‘라 일라하 일랄 라만 있고 뒷부분은 생략한 것이다. “오바마가 현재 왼손에 끼고 있는 밴드형 반지는 1980년대 오바마가 대학교 법학도 시절부터,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친(親)이슬람(Islam) 정적(政敵)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를 반성경주의(anti-Biblicism) 자라 한다.

오바마의 최대 정치 공적(功績)으로 역사에 기록된 동성결혼 합법화(合法化)가 2015년 1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5대 4로 확정(確定)된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創

키는 법이 통과, 현재 정규과목(正規科目)으로 성(性)교육을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경악할, 상상할 수 없던 도덕(道德)과 윤리(倫理)의 타락(墮落)이 한 순간에 붓물 터지듯 청교도의 신앙과 관습(慣習)으로 무장(武装)된 미합중국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슬람교도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민주당, 그리고 그를 추종했던 각료들, 행정, 사법, 입법부의 정치인(政治人)들과 관료(官僚)들이 중심이 되어 전 국민들에게 강제(強制)할 수 있는 법을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政府)가 주도적으로 대 사회적 큰 문제(?)를 야기(惹起)할 사안인 최고의 음란죄(娼淫罪) 19: 23-28, 롬 1:26,27)인 동성애(Homosexuality)를 미성년자들을



대상(對象)으로, 반성경적이며 비윤리적인 소돔(Sodom)을 고무(鼓舞), 조장(助長),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다. 감사한 것은 제35대 케네디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어 1962년 미연방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중지되었던 공립학교에서의 기도회(祈禱會)를 제 45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종교자유의 날인 2020년 1월 16일에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署名)한 것이다.

이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就任)이후 불신, 무신론자였던 케네디 전 대통령과 이슬람교도인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강제, 중단된 다수의 기독교적 가치관(價値觀)과 정책(政策)들을 과감히 정상화(正常化)시켰다.

그렇다. 참된 기독교인들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선출(先出)함에 있어서 그 정당(政黨)과 정책(政策)의 공약(公約)과 정책(政策)이, 과연 기독교 가치관과 세계관을 존중(尊重)하는가? 아니면 반대, 더 나아가 파괴(破壞)하는 것인가? 를 찬성(贊成)과 반대의 절대적 근거(根據)로 삼아야 한다.

kimjoyh@hot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미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s.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몽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 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 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584, www.fkci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www.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dog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이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베이사이드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인종교민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s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시30분 주일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기도회: 월요일 7:30, 화요일 7:30, 목요일 7:30, 금요일 7:30</p> <p>Tel. (6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요인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아침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아름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pe MEX(멕시코)</p>		

전광훈 이단성 정책총회서 최종 판단

예장고신 제70회 총회, 신임 총회장에 박영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고신은 22일 제70회 정기총회를 사상 첫 온라인 화상총회로 열었다. 정부의 실내 50인 이상 집합 금지 지침에 따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을 본부로 전국 22개 거점교회에서 분산 개최됐다.

개회예배와 임원 선거 중심으로 치러진 이날 총회에서 지난 회기 부총회장이었던 박영호(영원 새순교회) 목사가 신임 총회장에 당선됐다. 총회 대의원 509명 중 400명의 표를 얻었다. 박 목사는 취임사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인용하며 "새로 세워진 임원들과 함께 협력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신 교회를 세우는 데 주어진 직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개회예배 때 이번 총회 주제인 '함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박 목사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강조하며 "모든 지체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가 함당한 예배,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이 땅은 하나님을 영광으로 가득할 것"이라며 "그러면 세상은 교회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2차 경선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강학근(대구 서문로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316표(505명 참여)를 얻은 우신권(서울 보은교회) 장로가 뽑혔다. 서기와 회계에는 각각 최성은(남서울교회) 목사와 김태학(대구열린교회) 장로가 단독 임후보에 추대됐다.

예장고신은 방역을 위해 올해 총회를 3일에 나눠 치른다. 이날 조직총회를 시작으로 24일 부회의, 다음 달 6일 정책총회를 연다. 관심을 모으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이단성 여부는 정책총회 때 결정된다.

예장고신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해 총회 때 올라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옹호단체 및 전광훈 목사 이단옹호자 규정'에 관한 질의 건을 1년간 연구한 결과 "한기총과 전 목사를 각각 이단옹호 단체와 이단옹호자로 규정함이 가한 줄 안다"고 결론 내렸다.

'임시목사 2년 시무' 담임 칭호 현실화

예장합신 제105회 총회, 총회장에 박병화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은 22일 열린 제105회 총회에서 직전 부총회장인 박병화(상동21세기교회) 목사를 제105회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대한 이단과 이단옹호단체 규정 청원 건은 1년간 유예해 총회 신학연구위원회에서 연구하기로 했다. 반성경적 사상을 이유로 이단 여부 논란을 빚은 김대욱 전 한동대 교목은 지난 총회 결정에 따라 참여와 교류 금지를 지속하고, 이단사비대책위원회에 넘겨 연구·조사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경남 창원 벨엘교회(문수석 목사)에서 진행

된 총회 현장에는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조치에 따라 21개 노회, 316명의 총회대의원(총대) 중 총회 임원과 각 노회 대표 1인씩만 참석했다. 나머지는 노회별로 50명 미만의 인원이 모여 화상회의 시스템 줌을 통해 참여했다. 차기 총회 임원 선출부터 회무 처리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박병화 목사는 1부 개회예배에서 '우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 목사는 "죄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무너져 가는 조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2부 회무 처리 시간엔 벨

도의 성찬식 없이 곧바로 총회 임원 선거와 헌법 수정안 공포, 각 부 보고가 진행됐다. 선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바일 투표시스템인 스마트보트를 이용해 진행됐다. 전자투표를 처음으로 시행한 지난 총회에서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만 전자투표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전 임원으로 확대해 시행했다. 박 목사는 출석 총대 239명 중 163표의 찬성표를 받아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부총회장에는 김원광 중계총성교회 목사와 이이석 동부교회 장로가 선출됐다.

총회에서 담임목사의 칭호를 임시목사로 2년 시무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총회 헌법 조항을 개정해 '조직된 한 지교회의 청빙을 받고 노회의 위임을 받은 자라면 담임목사로 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 목사의 정년이 없는 것을 준용한 것이다.

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직전 총회장이 맡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장로 1명도 포함시켰다.

한 교회에 당회장과 담임목사를 따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안은 가을 노회에서 50% 이상 찬성을 얻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단대책위원회의 전광훈 목사에 대한 현의는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은 새 임원 명단이다. △총회장 김승수 목사 △부총회장 조정삼 목사 △장로부총회장 조문환 장로 △서기 김진규 목사 △부서기 이명복 목사 △회록서기 최은정 목사 △부회록서기 노일만 목사 △회계 허진국 장로 △부회계 홍성희 장로

북해 교회를 살리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총회가 되자"면서 "정치하는 총회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당부했다.

총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도 채택했다. 교단은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이 성경 말씀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법이기 때문에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수해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교회와 이웃, 총회를 후원한 양병희 영안교회 목사가 대표로 감사패를 받았다. 다른 수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공로패와 감사패를 보내기로 했다. 과거 3박 4일간 최소 40시간 걸렸던 총회는 4시간 만에 끝났다. 총회 산하 32개 국과 위원회는 20명 미만인 모임인 총회기관에서, 20명 이상은 줌으로 오는 28일까지 모인다.

이에 따라 동반연은 신학, 법학, 인문사회학, 언어학, 여성학, 보건학 분야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일컫는 연극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교수모임(동반교연), 결혼과 가정 을세우는연구모임(결가연) 등과 연대해 정기 학술모임도 개최할

'...차별금지법' 법사위 소위 회부

의원들에 법안 폐해 알리고 설득해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23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됐다"면서 "아직 제

국가조찬기도회서 차별금지법 우려 목소리

사상 첫 온라인 기도회로 열린 제52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 허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도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한 이승희 대구반야월교회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보다 더 큰 불안 요소라고 전했다.

이 목사는 28일 교계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방영된 국가조찬 기도회에서 "코로나19로 (나라가) 극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고, 거기에 더해 극단의 민심 분열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과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부 악법의 추진이 아니라에 대해 더욱 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는 양성 붕괴의 법제화 시도는 멈춰야 한다"며 "이런 시도는 교회의 역사의 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중보기도자로 참석한 김양재 우리들교회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낙태 허용법은 우리가 막지 않으면 영원히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법임을 알게 해 달라"

1소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상정될 수 있다. 법사위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설득작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며 우려를 표했다. 김 목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진신감을 입고 이 법을 막아 도래하고 있는 인구 절벽 시대를 막길 간절히 기도한다"며 "이 뜻에 같이하는 대통령, 위정자들, 국회의원, 지도자들이 성령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회 '학생인권조례안' 심사 보류

"5000여명 반대 서명...사회적 합의 더 필요"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궁남)는 23일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을 '심사보류' 처리했다.

교권 침해와 성인신 외국의 우려가 크고 편향된 인권 요소가 담겨 있다며 조례안 제정에 반대해 온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 찬성 측이 학생 인권침해를 이유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 만큼 비교육적·비윤리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하면서도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부궁남 위원장은 이날 "지역단체가 반발하고 있고, 5000여명이

회부된 161개 법안 중 123번째 법안으로 현재 제1소위원회에 넘어가 있다. 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 의원이 위원장이며, 같은 당 김용민(남양주병) 김종민(논산) 박주민(은평갑) 송기현(원주),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강서) 유상범(홍천 원성 영월 평창) 조수진(비례) 의원 등 8명이 소속돼 있다.

기독교법률가들은 차별금지법안을 막기 위해선 소위원회에 이에 상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소위원회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까지 올 수 있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현 상태에서 차별금지법안을 막는 최선책은 해당 지역 목회자들이 기독교법률가와 함께 법사위 제1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찾아가 법안의 폐해를 알리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반대 서명하는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의원들도 토론의 과정을 거쳤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등 찬반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송한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제주지부 대표는 24일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며 "새로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학생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여러 전문가와 함께 학생의 권리와 책무를 균형 있게 제시할 바람직한 대안 또는 조례를 만들도록 도의회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행정명령 한국기독교 최대위기에..."

예장개혁 105회 총회, 총회장 김승수 목사·부총회장 조정삼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개혁·총회장 정학재 목사)는 21일 제105회 총회를 열고 김승수(동서교회) 목사를 새 총회장에 선출했다. 임기는 1년이다.

총회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22개 지역 노회 별로 50명 미만만 참석했다.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채우고 복음으로 살리는 총회'였다.

신임 김승수 총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당국의 비대면 예배 행정명령은 한국 기독교를 최대의 위기에 빠뜨렸다"고 진단했다.

또 "기독교인의 예배권을 정부 당국의 행정권으로 강탈한 2020

년 8월 23일 주일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예배권을 행정명령으로 제약하지 말라. 정부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동성애 합법화를 즉각 중지하고 관련 법안을 폐기하라"고 했다.

이어 "재임 중 교단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며, 시대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등 총회 산하의 각 상비부와 위원회 활동 강화에 힘쓰겠다"고 정책을 발표했다.

대의원들은 총회 공직 75년 정년 제한 사제를 결의했다. 총회 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채택

예장백석 제43회 총회, 장종현 총회장 만장일치 재추대

22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백석 총회 회관 제43회 총회가 열린 2층 대회의실에는 총회 임원과 역대 총회장, 온라인 영상 송출 직원 등 49명만 있었다. 총회 대의원 800명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으로 접속했다.

의장단 책상에는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고 자리마다 손소독제가 비치됐다. 대회의실 한 가운데는 가로 10m, 높이 3m의 LED스크린을 설치했다. 한양노회 부산노회 서울강북노회 등은 노회원거리 모여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실시간으로 접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바뀐, 예장백석 교단 역사상 최초의 온라인 총회 모습이다.

'백석, 예수 생명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장종현 총회장이 박수로 재추대됐다. 제1부총회장에 정영근(서울 예수로교회) 목사, 제2부총회장은 김진범(서울 하늘문교회) 목사, 장로 부총회장은 안문기(성남성안교회) 장로가 선출됐다. 선거관리위원장의 후보자 소개 후 당선자 공고까지 10분이 걸렸다.

이날 총회에서 목회협력지원센터, 백석미래발전위원회, 총회설립 45주년기념사업위원회, 다음세대위원회 등의 신설안과 교회 내 노조활동 금지 결의, 화전문 인사 차대규 규정 개정과 화해조정위원회 설치 등 주요 안건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위임했다. 신규 임원 교체식은 생략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속 교회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상회비는 10% 삭감했다.

장 총회장은 "성령의 권위를 회

복해 교회를 살리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총회가 되자"면서 "정치하는 총회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생명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당부했다.

총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도 채택했다. 교단은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이 성경 말씀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 신앙 양심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법이기 때문에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수해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교회와 이웃, 총회를 후원한 양병희 영안교회 목사가 대표로 감사패를 받았다. 다른 수상자에게는 우편으로 공로패와 감사패를 보내기로 했다. 과거 3박 4일간 최소 40시간 걸렸던 총회는 4시간 만에 끝났다. 총회 산하 32개 국과 위원회는 20명 미만인 모임인 총회기관에서, 20명 이상은 줌으로 오는 28일까지 모인다.

이에 따라 동반연은 신학, 법학, 인문사회학, 언어학, 여성학, 보건학 분야에서 동성애의 폐해를 일컫는 연극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에게 연구비와 장학금을 지원한다.

또한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 교수모임(동반교연), 결혼과 가정 을세우는연구모임(결가연) 등과 연대해 정기 학술모임도 개최할

낙태 허용 입법 중단 촉구

"매일 태아 3000여명 살해" 바른인권여성연합 등 회견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케이프로 라이프 관계자들이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낙태죄 개정이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개정해야 하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케이프로 라이프는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중단과 함께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5개 부처는 낙태죄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 열린 5개 부처 차관 회의에서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 임신중절을 임신 14주 내의로 정하는 방안이 중

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의 95% 이상이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과 다를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은정 바른인권여성연합 경기 지부장은 성명에서 "태아가 어느 시점부터 생명인가를 논쟁거리로 삼으며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통탄할 일"이라며 "가장 작고 연약한 태아의 생명을 훼손하는 일을 국가가 범하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퇴보적이며 폭력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 3000여명의 태아가 살해되고 있다. 법무부에서 '낙태 비범죄화' 주장을 하며 입법 추진을 한다는 게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송해정 케이프라이프 대표도 성명을 통해 "낙태죄 입법 목적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낙태죄 개정을 다루는 정부의 모습에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전혀 읽을 수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신천지 '모락포교' 등 불법성 가린다

서산지파 상대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집단 포교 방식의 불법성과 신도 활동을 하며 얻은 정신적 피해 여부를 가리는 항소심이 시작됐다.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신혜영)는 지난 25일 신천지 전 신도 A씨 등 3명이 신천지 서산지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주요 쟁점은 신천지 측의 '모락예정'이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SNS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탈동성애 사업자 네트워크 조직에도 힘쓰기로 했다.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 또한, 탈동성애 상담기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포교' 여부와 신천지 지파가 독자적으로 포교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당사자 능력'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3년) 완성 시점 등이다.

이날 A씨 측은 "신천지 서산지파는 입교 전부터 탈퇴 전까지 모락과 기만행위를 일삼아 왔다"면서 "심에서 신천지 측 행위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묻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 측이 모

락 포교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는 만큼 신천지 측에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천지 서산지파 측은 "지파는 하부조직에 불과해 전도 방식이나 입교 등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신천지 본부와 대표자, 정관도 다르고 회계도 따로 관리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도 A씨 측은 미확된 사실을 알고 탈퇴한 시점인 2018년 9월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A씨가 처음 입교한 시점인 2012~2014년으로 계산해 청구권 소멸을 주장했다. 지난 1심에서 불법성을 인정할 전도 방식도 신천지 입교와 동시에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양측에 신천지 서산지파의 당사자 능력 여부를 인정할 만한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 했다. 다음 변론은 11월 6일에 열린다.

선교의 창 (155)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세상에서 지탄을 받은 종교

2020년 들어 한국에서는 종교가 사람들에게서 큰 지탄을 받고 있다. 금년 초 대구의 신천지교가 COVID 19를 전파하는 주된 온상이 되었다. 한풀 꺾이던 코로나바이러스가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8.15 광화문 집회를 통해 또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다. 이밖에도 지난 반년 간 여기저기 교회의 모임들로 인하여 이 역병이 파리를 틀곤 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종교인들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 개신교를 배타하는 분위기가 제일 크다. 미국에서도 여러 종교집단들이 사회에 풍파를 일으켜 왔다.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들이 덕을 못 끼치고 있다.

1. 종교적 대립으로 인한 불행했던 역사

“상상해 보라, 종교 없는 세상! 자살 폭파범도 없고, 9·11도, 런던폭탄테러도, 십자군도, 마녀사냥도, 화약음모사건(1605년 영국 가톨릭교도가

서 작가인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가 쓴 “만들어진 신”의 서문 가운데 한 부분이다. 요컨대 종교가 없다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인간이 얼마나 행복해졌겠느냐는 뜻이다. 이 글을 보면 종교만큼 나쁜 것도 세상에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다시 살펴보면 그 안에는 위선적 기만과 폭력적 선동이 교묘히 숨어 있음을 보게 된다.

2. 양면성을 무시한 가정

생각해 보라. “종교 없는 세상!”이라는 문장에서 종교 대신 다른 명사를 대입해보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인간에게 과학이 없었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우슈비츠, 굴락(소련의 강제수용소), 히로시마로 상징되는 비극은 아예 없었을 것이다. 인류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 당시 최첨단 무기로 전쟁과 테러를 자행해왔다. 그것이 돌도끼

라는 격이 될 것이다.

3. 종교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한 대표적 사례

종교에 대한 반감은 로마의 철학자인 루크레티우스(BC 94?~55?)에서 도킨스에 이르기까지 2000년을 이어온다. 대체로 인간의 반종교성은 그 자체에서 나왔다기보다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과오에서 나왔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6세기 성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비용 등을 확보하기 위해 로마가톨릭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었다. “상자 속으로 던져 넣은 돈이 팔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는 탁월한 슬로건과 효과적인 판매 전략으로 면죄부는 불티나게 팔려 세상을 어지럽혔다. 이러한 탐욕의 막장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

루터에 의해 시작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Sola fide, sola gratia, sola

따라서 종교로 인한 사건, 사고들은 인간에게 심한 거부감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4. 기독교의 전례 모습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남자와 여자의 교제 모임이었다. 그 후 교회는 그리스도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미국 상원의 채플린이었던 리처드 헬버슨(Richard C. Halverson) 목사가 1984년 미국장로교회에서 행한 설교 중 한 말이다. 그의 지적은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교회(Ecclesia)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사도성,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을 띠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빗대어 언급한 것이다.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헬버슨 목사와 김재환 감독의 문제제기는 한쪽 면만을 지나치게 들춰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저들의 문제제기를 겸허히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맺음 말

2020년, 인류는 COVID19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환난앞에 서 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온 지구촌의 사람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발길을 멈춰선 적이 있었던가? 생명의 위협 속에서는 서로가 예민해지기 마련이다. 불행하게도 불화살이 종교에 떨어지고 있다. 일부 종교 집단들과 모임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에서 개신교를 향한 세상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COVID19 사태로 말미암아 갑자기 돌출된 것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롯하여 여타 종교들에 대한 누적된 실망들이 표출되고 있을 뿐이다. 이곳 북미주에는 어떠한가? 서로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마다 판단들을 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생명 공동체이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여러 종교들 중 하나(One of them)로서 취급되어진 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녹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질식할 것 같은 종교생활을 멈추어야 한다.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쑤셔 박고 현실을 도피하는 닫힌 신앙생활은 너무 무책임하다. 어려울 때일수록 독수리처럼 높이,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우리의 표상이자. 이를 알면서도 거룩한 공교회가 세속화, 이념화, 정치화의 바람을 계속 탄다면 선교의 문은 더욱 닫히고 말 것이다.

jrson007@hanmail.net

종교들이 세상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종교모임들이 역병 확산에 주된 온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지탄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계획한 제임스 1세 암살미수 사건)도, 인도 분할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벌어진 대량학살도, 유대인을 예수 살인자라고 박해하는 것도, 북아일랜드의 분쟁도, 명예살인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번들거리는 양복을 빼입은 채 텔레비전에 나와 순진한 사람들의 돈을 우려먹는 복음 전도사도 없다고 상상해 보라.”

위 내용은 옥스퍼드대학 석좌교수이자 세계적 과학대중

den, 칼이든, 종이든, 원자폭탄이든, 생화학무기든 불분하고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학을 없애버려야 할까?

과학이 없어진다고 해서 전쟁과 테러도 함께 없어질까? 아마 아닐 것이다. 이처럼 “상상해 보라, ~이 없는 세상을”이라는 어법은 부정적인 면을 들춰내는 편향성을 지니고 있다. 세상이 대부분은 양면성을 띠고 있다. 어떤 것의 부정적인 현상 때문 주된 기능이 발휘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scriptura)이란 기치는 중세 1000년간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는 전환점이 되었다. 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출발한 개신교(Protestant)도 19세기 산업혁명 후부터 금권(Mormonism)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특별히 20세기 이후 교회와 교단들의 당파적 싸움은 그칠 날이 없었다. 내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수 없이 드러냈다. 불교 등 타 종교들은 어떠한가? 피조과장이다. 특히 이단들의 득세는 도를 넘어 세상에 큰 풍파를 일으켜왔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일제치하에서 그리스천과 교회는 만인이 우리러 말씀 중심으로 출발한 개신교(Protestant)도 19세기 산업혁명 후부터 금권(Mormonism)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특별히 20세기 이후 교회와 교단들의 당파적 싸움은 그칠 날이 없었다. 내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수 없이 드러냈다. 불교 등 타 종교들은 어떠한가? 피조과장이다. 특히 이단들의 득세는 도를 넘어 세상에 큰 풍파를 일으켜왔다.

드라마 예언서 (8)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의 상황을 살펴본 후에 하박국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배경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기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약 16년 전쯤(BC 610-BC 605년 경) 여호야김 시대 즈음입니다. 바벨론은 계속해서 남방 유다를 괴롭히고, 나라의 생명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바로를 꺾으면서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는 여호야김이 남방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던 여호야김이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 세력을 몰아내려 하자,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암살합니다(대하36:6, 왕하24:1-2). 이에 남방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김(여호야김의 아

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왕을 세운 남방 유다가 못마땅한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끌고 남방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야김을 비롯하여 왕족과 권세자들과 용사들과 대장장이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끌

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화형식으로 하박국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의 내용

하박국 : 하나님, 우리가 폭력에 시달리며 살려 달라고 외쳐도 왜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구해주지 않고 지켜만 보실 작정이십니까? 여짜서 우리에게 불의가 득세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득세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율법은 헤이해졌고, 정의는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헐박하고, 정의는 왜곡되었습니다(합1:2-4).

은 손살같이 달려서 먼 곳으로 부터 온다. 마치 먹이를 달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온다. 그들이 와서 폭력으로 포로를 잡아갈 것이다. 그들은 왕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과 견고한 성읍들을 우습게 여기고,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합1:5-11).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화가 납니다.)

하박국 :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벨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정결하시며 악과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도록 허락하십니까?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합1:12-17)

지 않을 것이다. (의인인 너희가 악인인 바벨론에 의해서 죽게 생겼다고 불평했니?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술을 즐기며 교만하다. 그들의 탐욕은 무덤과도 같다. 저들은 빼앗은 물자로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언제까지 그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나? 빛쟁이들에게 다 노략당할 것이다(합2:2-8).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합2:14). 결국 그 악인들은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합2:15-19). 그러니 온 땅은 여호와 앞에 잠잠해야 할 것이다(합2:20).

(하나님의 계획과 본심을 들을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무서운 심판(질병과 전염병)을 부리며 오십니다(합3:5).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땅이 흔들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민족들이 몸을 떨고, 옛 광야의 적들, 구산과 미디안이 그분의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라, 잔뜩 겁에 질려있습니다(합3:6-7).

(하박국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진노한 하나님께서 땅을 짓밟으셨고, 격노한 주께서 사악한 민족들을 내리 밟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왕에게 혼쭐을 내셨고, 그의 군대를 날려 버리셨습니다(합3:12-13). 저는 물러나 앉아 기다립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에게 달철 운명의 날을 기다립니다(합3:16).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박국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달리게 하십니다.

하박국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며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후에는 ‘하나님, 그 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바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하박국서: 불평하는 하박국의 질문에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답 바벨론 통해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심...하나님 찬양으로 마무리

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왕하24:6-17). 이렇게 바벨론에게 시달리던 상황에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저 질문 있어요! 질문 있다니까요!”라고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 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더 잘살고 득세합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벨론을 통하여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 내가 말을 해줘도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내가 할 텐데, 사납고 성급하여 온 천하를 주름 잡고 돌아다니면서 남들을 악탈하고 점령하는 백성들(바벨론)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이 부리는 말은 표범보다 날쌔고,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병

(하박국은 자신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내심 궁금합니다. 그래서 파수하는 망루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 하박국, 너는 이 목시를 기록하여 판에 선명하게 새겨라. 그래서 누구든지 달러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목시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늦어지

하박국 : 하나님, 주님에 대해 전하는 조상들의 말을 듣고 놀라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역사해 주십시오. 심판하실지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주세요.

주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합3:1-2). 하나님께서 옛 구원의 길을 되찾아 오시고, 하늘이 그분의 광휘로 번쩍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땅을 울립니다(합3:3).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계시를 받는 바른 태도(계1:17-18)찬177장

요한에게 나타나신 인자 같은 이 곧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구속을 적용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인자의 계시를 받은 요한은 계시 받을 자세에 관해 어떤 본을 보여 주셨습니까? 첫째, 계시 앞에 쭈뼛거리셨습니다. 누구든지 계시 받은 자는 그 영광에 압도돼 자동적으로 엎어지게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인 성령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된 것입니다. 둘째, 자

의식을 가진 자로 계시 받았습시다.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합니다. 셋째, 계시를 내 것으로 적용하는 것도 인자의 도움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의 생명인 계시를 받아 누리는 것 곧 적용하는 일 역시 인자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엡1:17-18). 그 인자에게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화 인자의 계시 IV(계1:17-18)찬213장

계시 받는 과정에 또 인자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첫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알파와 오메가라고 나타나시는 창세전에 계획된 교회가 마지막에 완성될 일을 알리신 것입니다. 인자 안에 완성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나타날 것입니다(히12:23). 둘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특히 인자는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자신이 이루실 구속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의존됨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회는 이것 위에 서있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동시에 그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인자는 죄의 결과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행사하십니다. 모든 일을 친히 행하시는 인자의 손에 쓰임 받습니다.

수 요한이 받은 계시의 특성(계1:19-20)찬241장

그러면 계시의 주체이신 인자께서 주신 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첫째, 직접 본 계시입니다. 요한이 직접 본 것이란 계시의 인격성을 보여줍니다.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것이 계시입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뜻은 제한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가 기록한 계시는 개인이 깨달은 대로 기록할 수 있는 명백한 성격을 가집니다. 셋째, 그

것은 교회만이 받을 수 있는 제한성을 가집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오직 그의 백성인 교회뿐입니다. 요한이 본 계시는 교회가 반드시 깨닫고 순종해야만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기에 교회 대표인 목사는 계시의 전문가가 되어야합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의 성격을 안 우리는 계시에 의존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 에베소교회가 받은 계시(계2:1-7)찬416장

각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인자는 각 형편에 맞는 분으로 보여졌습니다. 에베소교회에 나타나신 인자는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첫째, 칭찬으로 시작하셨습니다(2-3). 행위와 수고와 인내 그리고 이단을 용납지 않은 일에 칭찬하셨습니다. 교회가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일에 인정을 받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둘째, 책망하셨습니다(4-5). 인자의 눈에 첫사랑을 잃은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죄에서 돌

이키지 않으면 교회의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리키는 첫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외식에 떨어진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그는 약속하셨습니다(6-7). 니콜라망이란 이단과 싸워 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할 때 영생을 즐기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첫사랑으로 지킵시다.

금 서머나교회가 받은 계시(계2:8-11)찬383장

인자의 칭찬만 받은 서머나교회는 무슨 일에 충성했습니까? 첫째,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9). 믿음생활에 몰려오는 고난은 변장된 복입니다. 이 때 믿음을 포기하는 자는 그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야말로 참 믿음으로 변화 받아 지켜나가야 합니다. 둘째, 복음으로 당하는 핍박을 견디었습니다(9-10). 그 난관 중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복음

으로 당하는 난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위해 고난당하는 자는 기뻐 뛰어 놀아야할 상황입니다. 이는 주께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10). 복음으로 죽기까지 충성한 자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누립니다. 그 복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토 버가모에 나타나신 인자(계2:12-17)찬402장

버가모에 임하신 그리스도는 무엇을 칭찬하며 경계하며 약속하셨습니까? 첫째, 안디바의 순교가 나온 것처럼 진리를 파수하는데 영적 분별력을 가졌습니다(13). 죽기까지 복음에 헌신한 신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둘째, 발람의 물질주의와 음행의 죄로 이끄는 니골라당에게 넘어가서 책망을 받았습니다(14). 교회는 섰다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거짓

교훈을 던지는 사탄의 유혹을 경계해야합니다. 모든 거짓 교훈은 육체 소욕의 노예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합니다. 셋째, 이런 혼합주의 속에서도 주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16-17).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감추인 만나와 흰돌 곧 하나님의 성결을 누리며 신령한 은혜를 즐길 수 있게 합니다. 말씀으로 되는 성결을 구합니다.

알기쉬운 IT칼럼

QR코드를 만드는 방법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일입니다. 9월 15일 화웨이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 중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것은 일절 금지해 소위 고사 작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화웨이에 납품하던 삼성, SK하이닉스는 물론 일본의 Sony를 비롯한 많은 기업도 당장 타격을 입게 되고 이들 업체도 재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회사가 일본 Sony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는 사람 눈에 해당하는 이미지센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세계 1위는 Sony입니다. 1년 전만 하더라도 Sony와 삼성의 시장점유율은 56:17이었는데 2020년 2분기는 42:22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기술면에서는 삼성이 Sony보다 월등해서 삼성은 유일하게 1억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여 최고품질의 스마트폰에서는 이 센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화웨이에서 지금까지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Sony로서는 거대한 납품처를 잃은 것이지요. 물론 삼성도 반도체를 수출 못해 7조원 정도의 손실을 잃는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른 회사들이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때 그 회사들에 납품하면 오래지 않아 만회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미지 센서에서 Sony를 추격하는 삼성에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분명 기회도 같이 옵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기간을 버틸 수 있는가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겁을 먹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위험한 위기가 위대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모두 위대한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QR코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R은 Quick Response의 약자입니다. 즉 빠르게 응답하는 코드체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QR코드는 정말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Bar code에 비해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이 QR코드는 여러 가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Youtube 주소를 이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Youtube를 훨씬 편리한 방법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Homepage, Email 주소 등 적용할 수 있는 범위도 상당히 넓습니다. 특히 인쇄물에 이 QR코드를 넣으면 스마트폰으로 아주 쉽게 스캔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

고입니다. K 방역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인데 이 근간에는 IT기술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이들이 출입하는 곳마다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QR코드를 이용하여 전자명부 작성을 의무화한 곳이 많습니다. 한국에 나온 지 4달 만에 처음 맥도날드를 갔었는데 이곳에 전자명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카톡을 이용하여 내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생성하게 한 후 이 QR코드를 가게에서 설치한 스캐너가 읽어 들어 누가, 언제 출입했는지 자동으로 기억되어 만일 그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추적하는 방역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가히 IT 강국다운 멋진 방법입니다.

Apps 360 Team에서 만든 앱 다운 받아

오늘 우리가 다운받아야 할 앱은 QR 및 바코드 스캐너 PRO입니다. 이 앱은 Apps 360 Team에서 만들었는데 비슷한 앱이 많으니 꼭 제작사를 확인하세요. 이 앱은 평점이 4.7인 아주 만족도가 높은 앱이고 원래 \$1.99의 유료 앱인데 현재는 무료로 풀려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운받아 놓으면 설령 이 앱을 지우더라도 나중에 유료가 되도 나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한 흔적이 있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앱을 실행하면 여러 가지 허용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모두 허용하십시오. 무언가 허용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망설이는데 여러분의 중요한 Information을 빼가는 것이 아니니 안심하시고 허락하십시오. 동작하면 바로 카메라가 시작되어 다른 QR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스캔하면 바로 해당 Website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오늘은 이 앱을 이용하여 내 QR코드를 만드는 것을 하겠습니다. 위의 메뉴 중 두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많은 메뉴 중 URL을 선택하겠습니다. URL이란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줄임말로 해당 웹사이트의 주소를 말합니다. 제 카카오톡 채널 주소를 입력하여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여 카카오톡 나에게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저장해 놓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보내주기 위함입니다. 아주 쉽지요?

이 앱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도 QR코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QR코드는 인쇄물에 넣으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명함에 카카오톡 채널 QR코드를 넣어 누구든 제 명함을 스캔하면 쉽게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그것을 이렇게 QR 코드로 만들어 가장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를 살기 위해 홍보는 필수인데 이렇게 새로운 홍보방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적용해 나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siyoon7231@gmail.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완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윌리엄스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신교 편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안녕하십니까? 온 세상이 참 어려운 시기에, 그저 기도 하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지요?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 지니라 하였노라"(욥38:11). 헝가리에서, 저희 "소금과 빛개혁신교회"는 현재 '믿음의 공동체'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5월 31일 마지막주일인 성령강림절과 어린이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9월 2일부터 학교도 개학을 해서, 저희 예배당과 벽을 함께 하는 '꺼더 미하이' 초등학교(8학년까지)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요셉 아틸라" 고아원(보육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교회학교용 성경책으로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단, 여름휴가를 다녀 온 헝가리인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여 더 주의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믿음, 주님사랑으로, 또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헌금의 미션을,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에게도 맡겨주셨음을 늘 명심합니다.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 24:45)이 되어, 최선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주여...!

좀 더 상세한 소식과 기도 제목을, 아래 사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사진은, 왼쪽부터 아래로).

1. "소금과 빛 개혁신교회" 예배와, 말씀과, 식사의 교제를 통해, 영혼육이 건강하고 주님사랑하게 하소서! 찬양팀: 러이요쉬, 엘리,

아미, 로베르트, 신희선 선생. 급식봉사팀: 클라라a, 주저, 클라라b, 미하이, 예니, 유디트. 설교(말씀전파): 김흥근 목사 준비(음식준비와 청소, 이발): 서명희 선교사. 이 모든 섬김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2. "거리의교회" 예배와 급식사역은 남부역에서, 매달 첫 주는 목요일, 보통은 매주 수요일로 옮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독거인들이 좀 더 많이 오셔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영의 양식과, 따뜻한 음식으로 위로가 되고, 그들의 기도가 상달되어 속히 응답받게 하소서!(올해는 단기선교팀이나 손님이 없었지만, 저희 주일학교 팀이 와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3. "주일학교" 예배와 성경공부, 찬양, 기도, 신나는 게임으로, 어린 시절 믿음의 추억을 많이 쌓게 하소서!

성경공부: 피테르 전도사. 놀이와 활동시간: 원선미 선생과 최하은(세멜바이스 대 4년), 보조: 피로쉬카, 일디코, 로베르트. "토요영어학교"도 지난주부터 재개했습니다. 더 많이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소서! 특히, 아미(Armi, 7학년)가 기타연주로 섬기며 참 열심인데,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참 안타까운 일은 부다이 가족의 자녀 9명이 보육원

세 군데로 보내진 것입니다. 더구나 딸이 뻐린다(17살)가 곧 출산을 하게 되며, 1년간은 '심대 미혼모 시절'로 가게 됩니다. 주여...!

감사한 것은, 주일에 몇 시간 외출을 보육원에서 허락 해줘서, 저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4. "요셉 아틸라" 고아원(보육원) 아이들이, 교회학교용 성경책을 읽고 씬으로,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소서!

올란, 버나샤가 현재 교회학교용 성경책을 꾸준히 읽고 쓰고 있는데, 끝까지 완독, 완필하기를... 클라우디아, 선디, 안치, 벤체, 비앙카, 다니엘, 밀란... 이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기를...!

개인적으로 저는 매일 이

른 아침 예배당에서 말씀과 기도시간을 갖고 있으며, 일주일에 두 번 헝가리어 설교를 준비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일과 수요일(매달 첫 주는, 목요일) 저희 부부 함께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Walking Prayer" 동네 한 바퀴(4km)를 걸으며 중보기도를 하며 2)오전에는 헝가리어 교회학교용 성경책을 읽고 쓰기!(석달 만에 한권 완필, 지금은 다른 버전 성경책) 3)저녁에는 한글 성경책을 읽으며 가정예배를 드립니다(지난 5월 6일 완독 후, 다시 시작해서 오늘 밤은, 역대하 26장 읽을 차례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 지니라 하였노라"(욥38:11). 깊이 감사드리며, Majestic God!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원로칼럼

사람이 먼저인가?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나는 여러 해 전에 탈북자, 전 김일성종합대학 총장인 황장엽 선생을 만날 뻔했다. 황장엽 선생은 이른바 김일성 주체사상을 창안한 설계자였다. 황장엽 선생은 자유를 위해 전쟁을 막기 위해서 탈북한 것은 맞지만 그가 만든 김일성 주체사상을 포기했거나 전향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는 TV에 나와 주체사상을 결국 '인본주의'라고 했다. 그는 이른가요, 사상가요, 철학자였다.

내가 야기는 이귀범 목사가 한때 황장엽 선생을 두고 있었는데, 아주 묘한 아이디어를 냈었다. 전 김일성종합대학 총장과 전 총신대학교 총장과 만나서 사상적 토론과 논쟁을 벌이는 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이라고 아이디어를 냈다. 나는 평생을 '하나님중심 사상, 성경적 사상체계를 가진 칼빈주의 사상'을 전파한 자유, 그쪽 황장엽 선생은 '인본주의적 사상체계를 가지고 북

쪽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논리를 펼친 자이다.

사실 황장엽 선생이 주체사상이란 바로 인본주의라고 했으니, 실제 '인본주의는 결국 종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복을 얻고, 인간은 완전하기에 자기결정 여하에 따라서 행복 또는 불행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인본주의가 종교로 대접받기는 케네디 대통령 때이고, 미연방 대법원에 인본주의가 종교로 인정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인본주의는 세계최대의 종교가 된 셈이다. 인본주의는 세상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사상체계이다. 따지고 보면 주체사상과 인본주의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존 듀이가 설계한 인본주의는 15개의 신조 곧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요약하면 우주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로 된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되었으며 점점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채용한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완전해서 자아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믿음만하다는 것이다. 인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유물사관과 무신론적 사상에 근거한다. 이런 인본주의 세계관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용사로 쓰여지고 있다. 인본주의적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포함한다. 인간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해 진다는 목사의 설교도 결국은 인본주의적 설교이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황장엽 선생이 만든 '주체교'는 신도가 2,300만명으로, 세계종교 10대에 들어있는 거대 종교이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오직 수령이 곧 하나님이고, 절대자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를 부추기는 것이 인본주의이다. 이런 '인본주의 주체교' 시스템으로 백성을 노예화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북한은 온 인민이 수령에게 지사충성하여 강성대국을 만들어 인민이 고무고루 잘사는 사회주의 건설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와 시장경제에 싫증이 났는지? 지금 한국에는 주체사상을 동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도 너무 많아졌다. 즉 '주체교'란 이단종파에 깊이 빠진 것이다. 대한민국에 사는 주체교 신도들이 이렇게 많아졌다. 이단 종파의 특성상 한 번 빠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교리와 사상에 빠져버린다.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다. 그 말에 국민들은 환호했고, 이 땅에 희망을 바랬던 모양이다. 그러나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인본주의 종교나 주체교를 가진 자들에게 금과옥조 같은 귀한 진리이다. 사람을 꼭 따지지 하는 멋진 프로파간다이다.

최근에 대통령이 기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하여 이른바 '대화의 모임'을 가졌다. 대통령의 좋은 말도 있었으나, "결국 종교란 인간의 평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그 나름의 종교관을 말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훈시까지 했었다. 이에 대해 기독교계 대표 목사님은 "예배는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했다.

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라는 인본주의와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상과의 충돌이다. 사람들은 요즘 코로나19가 중심인줄 알고 있지만, 결국은 김일성의 주체교와 성경적 '기독교'와의 충돌이요, '인본주의 세계관'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의 충돌이다. 달리 말하면 세계관의 충돌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둘 다 모두가 종교적 신념이요, 사상이기 때문이다. '주체교' 또는 '인본주의'도 종교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기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코로나 19가 종식되거나, 백신이 발명되어 새로운 일상이 온다 해도,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즉, 주체교와 기독교의 대결은 계속될 것이다. 가인의 종교와 아벨의 종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할 것이다.

우리 지도자들 중에는 반목과 질서와 대결을 종식하고, 화해 평화 포용을 앞세워 우리 민족끼리 하나 되자고 말한다. 구호는 참으로 좋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서로서로 양보하고 어느 체제가 되든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확산이나, 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환란 때 진리와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아쉬운 것은 주체교를 만든 전 김일성종합대학 교 황장엽 선생과 하나님중심 사상 즉 칼빈주의 사상을 평생 주창해온 필자와의 만남이 성사되었으면 좋았을 뻔했으나, 당시 정치권의 방해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한다. 그쪽 비서관과 우리 쪽 비서관 그리고 필자가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일정과 의제를 조율했으나 기관의 방해로 그 일은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다.

'사람이 먼저'란 말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란 사람도 더 많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일찍이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라고 했고, 시편에는 '주의 빛 가운데 빛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롬11:36).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요, 생명이요, 확신이다! skc0727@yahoo.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감염되지 않아도 두렵고 떨려요!

PCUSA, “팬데믹은 교단신학교 재학 중인 유학생 상황 불확실하게 한다” 알려

COVID-19로 인한 어려움의 이야기들이 미 전역에서 들려오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으로 인해 이전부터 우려하고 있는 유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를 가져왔다.

7월 초에 이민국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 전염병 기간에 미국 내에서 머물며 온라인 수업을 듣게 했던 3월의 결정을 무효화했다. COVID-19가 아직 통제되고 있지 않고 많은 신학교나 대학교가 원격으로만 수업을 하기로 했는데, 새로운 정책은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듣는 유학생들은 미국을 떠

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민국은 각 교육기관이 그 계획을 보고하는데 20일도 채 주지 않았다. 다행히도 그 정책은 일정이 재조정됐으나 이미 학교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야기했다.

PCUSA 이민문제 사무처의 변호사 테레사 와그너(Teresa Waggener)는 교단 산하 신학교들에게 연락해 유학생들의 상황, 앞으로의 계획, 개교회들의 지원의지를 말해준다(Pandemic brings uncertainty to international students attending seminary. Many lean on support from the church to make it).

“학생들은 이곳에서 해왔던 그들의 학업에 대한 모든 노력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류미비자가 될 것을 두려워했는데, 체류 신분을 잃는 것은 곧 이곳을 떠나야 하나 현재 이들의 나라로 귀국하는 항공편이 전염병으로 인해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와그너는 말하며 신학교와 후원자들이 이들을 지원하며, 그들의 사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새 정책을 변경시키고자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캔터키 주 루이빌 장로교 신학교에 재학 중인 3명의 학생들은 장애물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파키스탄의 아킬 자비드는 매우 견고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다. 그의 증조부는 시크교도였는데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다.

“제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정글에서 혼자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는 성경책을 읽어

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날부터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할머니와 함께 기독교인이 됐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교회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파키스탄 장로교회의 부의장으로 섬기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장로교인이었던 자비드는 주일학교 교사로 그의 신앙여정을 시작해, 아이들에게 음악과 기도를 가르쳤다. 그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이는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이기 때문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성 금요일 예배에서 제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 이 사역을 5년간 지속하고 있습니다”라며 “교회에 청소년 모임을 다시 만들었는데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우리 활동으로 소그룹 주간 모임을 만들어 이를 통해 어른들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말씀을 전해왔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성경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보니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됐

다고 자비드는 말한다. 그는 마을마다 학교를 세워 지난 4년간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쳤다.

자비드는 더 의미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이번 가을학기에 루이빌 장로교 신학교의 M.Div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그러나 파키스탄 주재 미국 영사관은 전염병 기간 중에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대한 서비스를 제한한 관계로 일정이 많이 밀려 그의 비자인터뷰는 10월에 잡혀 있다.

베레나 슈미트는 결혼가정상담 프로그램 전공으로 루이빌대학교에서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 10년 전

다. 그는 이번 가을학기에 루이빌신학교에서 그의 목회학석사 2년차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의 아내와 네 자녀들은 그가 학업을 마치는 동안 가나에 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였지만 대학을 마치고 기계공학자로 1999년 월드비전 가나지부에서 일하기 전까진 헌신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월급을 받는 젊은이로 저의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던 어느 날 밤 한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여, 너의 행동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느낄 때까지 그는 그의 인생에서 많은 환란을 겪어야 했다고 아쉬우는 말했다.

그는 다른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가나 밖에 있는 학교를 찾는 중에 루이빌 신학교를 떠올렸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1986, 7년도에 이 학교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웹사

이트를 확인한 후에 신청했다. 그가 루이빌에 있는 동안 아쉬우는 그의 가족들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저의 주요 후원자는 부동산개발자로 여러 호텔들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그의 사업체들을 폐쇄한 상황에서 여전히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회가 그의 급여를 지불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고 있으나, 교회 성도들이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그의 급여는 현재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민문제 사무처의 아만다 크래프트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창조적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의성을 활용해 하나님의 사랑, 자비, 정의를 드러내게 하신다.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떠나도록 강제하는 결정은 철화됐지만, 이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라앉히 않는다. 이 나라의 시민이자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정책이 더 큰 불의를 양산해내고 두려움, 공포, 근심을 낳는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캐플린 임상목회 (43)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캐플린)

코로나 블루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텍사스 주는 한때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다음으로 많은 COVID 19 확진자로 인해 주민들 및 일선 병원근무자들의 긴장이 가라앉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성향으로 인해서 노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도 않은 채 공공장소에 출입하는가하면, 무분별한 집단 파티들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뒤늦게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주민들의 인식이 변하면서 확산이 점점 감소하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자택 내 생활 및 학교와 직장의 폐쇄 등으로 인해 각종 정신질환 환자들이 홍수처럼 병원으로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과 병동이 올 여름 증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병실이 100% 만실인 상태이며 입원 대기 중인 환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입원환자의 평균 나이가 작년까지만 해도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었던 것이 지난 6개월간에는 30대 초반으로 변했습니다. 그만큼 20, 30대의 젊은 층 환자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다시금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지내다가 갈등을 겪기도 하고 여성들은 심지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과 자살기도를 한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불안증과 우울증 등으로 진단받고 주치의와 가족들에 의해 입원치료를 권유받아 들어오게 된 환자들이지만, 개별적인 상담을 해보면 어릴 적부터 갖고 있던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코로나사태를 통해 생활방식과 환경이 바뀌면서 다시 노출되고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20대 후반의 한 여성 환자는 어릴 적부터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오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게 되어 독립하면서 자연스럽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직장이 폐업을 하면서 임시로나마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다시금 악몽이 재연되는 바람에 극심한 우울증으로 자살기도를 하게 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는 현재 형사고발되어 구속되었지만 이 환자는 이 일로 인해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치료 후에는 크리스천 웰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수많은 정신 질환자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실제 상황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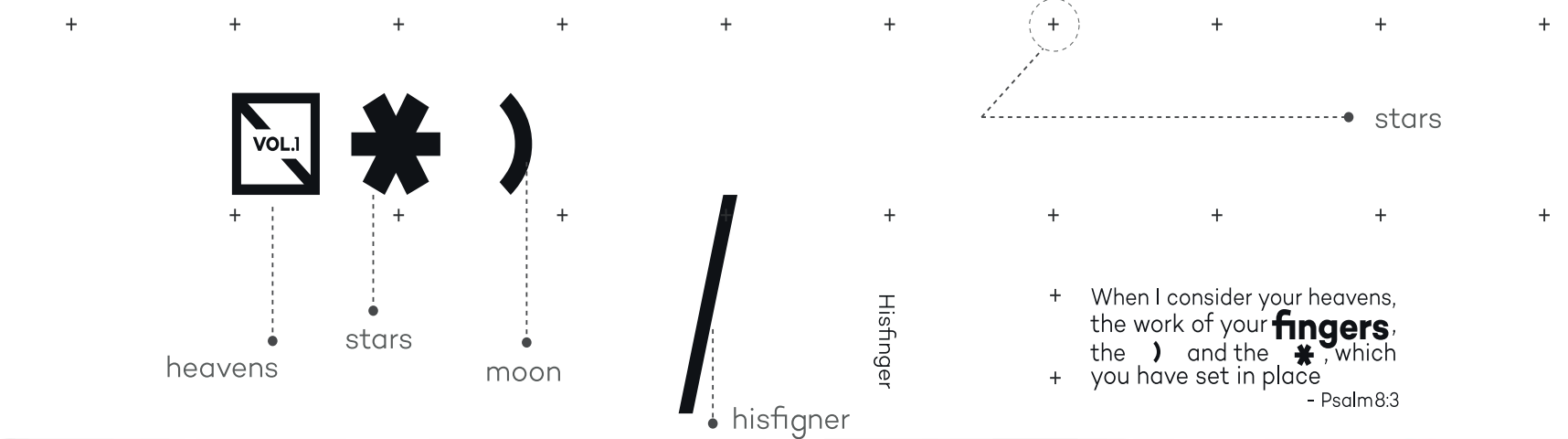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감정은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어서 살고 싶지 않은 절망감(hopelessness)과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무력감(helplessness)입니다. 아울러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fear)에 휩싸여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이 마비되고 만다. 가장 손쉬운 도피책으로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한 번 혹은 그 이상 자살기도를 하고 미수에 그친 환자들을 대하게 됩니다.

저는 영적 돌봄을 통한 치유팀의 일원으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사회 복지사 등과는 달리 당연히 성경적인 접근법으로 환자들이 생각이 바뀌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로 절망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인 무력감의 원인이 된 생각을 돌아보게 합니다. 왜 환자가 희망이 없다고 느꼈는지, 왜 지속적으로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되었는지 본인이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육신과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합니다. 소망을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환자가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하던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다시금 소망을 찾고 삶의 용기를 얻도록 격려한 후 함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많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영혼을 병들게 하며 더 깊은 고통 속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 이웃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으면 합니다.

tdspark@gmail.com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